

2002학년도

碩士學位請求論文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하여

De causis propinquis et remotis Calvinii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안 성 균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하여
De causis propinquis et remotis Calvinii

指導 金 永 奎 教授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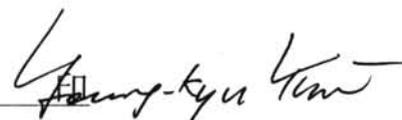
안 성 균

안성균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審査委員 박종근 

審査委員 김성보 

審査委員 김성규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년 12 월

감사의 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논문과 씨름하는 동안에 나 자신의 심히 부족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작업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영규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좌표와 내용, 그리고 보상으로 소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는 동안 함께 대화하고 격려해준 동역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12월 안 성 균

목 차

I. 서론	1
A. 문제 제기	1
B. 연구 방법	3
II. 본론	4
A. 칼빈에 의하여 비판된 헬라철학의 인식론 문제	4
B.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	12
1. 칼빈의 인과론에 대한 정의	13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피조물의 창조	15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천사와 사탄의 창조	15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와 유기자의 창조	17
3.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피조물의 악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26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사탄의 악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26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첫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28
(1) 행하는 것(agere)과 허용하는 것(permittere)	30
(2) 목적(finis)과 방식(modus)의 차이	32
c.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인류의 근원적 심판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34
d.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유기자의 맹목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40
4.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41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지성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45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의지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47
C. 인과론의 오해에 대한 칼빈의 답변들	53
1.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인간의 숙고와 대비는 충돌하는가?	53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인간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되는가?	55
3. 하나님 안에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는가?	59
4.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60
III. 결론	62
색 인	64
참고문헌	65

I. 서 론

A. 문제 제기

결정론과 자유의지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 논쟁된 신학의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첨단 과학에서도 첨예한 연구분야로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플라스(Pierre de Laplace, 1749~1827)에 의하면,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그러므로 사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한 주어진 원인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인과률을 주장했다. 예컨대, 경사진 면 위에 놓여 있는 공은 중력에 의해 하강운동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뜨거운 찻잔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 버리고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 즉, 라플라스는 거시차원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사실상 모든 곳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편재하는 인과의 법칙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적 계도 비 유기체적 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반응들, 음식물의 소화와 관련된 반응이건 혹은 모기에 물렸을 때 일어나는 신경근육의 반응이건 간에, 동일한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에 의해 모두 정의 가능하며, 이 법칙들은 지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를 주관하는 법칙들이라고 하였다.¹⁾ 이러한 결정론(theory of deterninism)이 1927년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의 불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indeterminacy)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측정은 그 정밀도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진술해 주었다. 이 원리는 어떤 입자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면 할수록, 그 입자의 위치는 그만큼 불확실해진다는 것으로, 위치와 운동량의 정확한 값은 결코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학계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과학계는 이런 과학실험의 결과가 비결정론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²⁾

1) Gerald Schroeder, *The Science of God*, 이정배 역, 『신의 과학』(서울: 범양사 출판부, 2000), 232~233.

2) Ibid., 233~234.

이런 면에서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현대첨단과학에서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만큼,³⁾ 결정론과 자유의지 문제는 더욱더 첨예한 문제로 열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기독교의 영역밖에 있는 철학에서도 예정과 의지의 자유가 다뤄졌는데, 철학은 대개 범신론적 결정론(a pantheistic determinism)과 이신론적 의지의 자유론(a deistic freedom of the will) 사이를 방황⁴⁾하였다. 범신론적 결정론의 예로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정이 제 2원인의 본성에 주의할 기울이지 않고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일종의 맹목적이며 조급하고 횡포적인 힘으로 생각⁵⁾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당연히 여러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왔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예정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예지를 조건으로 해결을 시도했던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가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도 의지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 강건일, 『신과학은 없다(상)』 (지성사, 1998), 117~118: “결론적으로,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은 통계적 성질을 인정하며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정론과 배치된다. 양자론, 특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뉴에이지 추종자에 의해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하이젠베르크 등 코펜하겐 서클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에 여러 일화적 비유를 포함시켰으며 결정론의 쇠퇴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나, 한마디로 불확정성의 원리란 여타 물리현상과 마찬가지로 시험될 수 있는 확고한 물리적 현상인 양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성의 법칙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불확정성 원리란 원자 구성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또는 속도를 측정할 때 그 불확정성의 관련성을 나타낸 법칙일 뿐이다. 우리가 위치를 절대적으로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속도는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 있다. 거꾸로 속도를 이렇게 측정하려면 위치는 어떤 값이든지 나타난다. 그래서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때는 일정한 정도의 불확정성을 가지도록 타협해야만 하며 이 때 값은 통계적 확률로,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지만 일정한 확률을 고려하면 50~150센티미터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규정한 법칙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4)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rans. William Hendriksen (The Bath Press, 1977), 345.

5) Jerom Zanchius, "The Predestination of the Mahometans," *The Doctrine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 Augustus M. Toplady [CD-ROM] (Edmonton: Still Waters Revival Books, n.d.), n.p.: "They appear to consider predestination as a sort of blind, rapid, overbearing impetus, which, right or wrong, with means or without, carries all things violently before it, with little or no attention to the peculiar and respective nature of second causes."

그들은 그런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여 살피시고 기다리시는 태도를 취하신다고 생각했다. 그 의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살펴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지(全知)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 모든 조건지어진 미래 사건들, 또한 모든 절대적인 미래 사건들을 미리 아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 예지(豫知)에 따라 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은 예수회(the Jesuits)에 의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모든 개혁신학자들(all Reformed theologians)은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⁶⁾하였다.

기독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철학적인 독설(毒舌)을 품고 있는 이런 혼란과 현대과학의 스스로의 모순점 및 철학의 이율배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적정하고 절도있게(modeste et sobrie) 다뤄야만 하는 요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B. 연구 방법

본 주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늘 혼돈의 뿌리가 되는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론을 칼빈의 견해에 따라 먼저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적정하고 절도있게 성경에 접근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인과론에 대하여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인과론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바르게 고찰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먼저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⁷⁾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인과론의 세부사항들을 다룬 후에, 인과론에 대한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6)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189~195.; Heinlich Heppe, *Reformed Dogmatics*, trans. G. T. Thoms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77~81.

7) Institutio 1559 I, xvi, 1: "Sic David(Psal. 33, 6), breviter praefatus mundum fuisse a Deo conditum, statim ad continuum providentiae tenorem descendit."; I, xvii, 2: "Ergo Dei providentiam rite et utiliter nemo expendet, nisi qui sibi cum fictore suo mundique opifice negotium esse reputans, ad metum et reverentiam, qua decet humilitate, se submiserit."

점들과 그 안에서 산출되는 적용을 더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 전체에 흐르는 반복적인 칼빈의 중요사상에 대한 정리로 이 논문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II. 본 론

A. 칼빈에 의하여 비판된 헬라철학에 대한 인식론 문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학자들의 잘못된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식론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치 하나님께서 만물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따라서 자유로운 과정에 의해 지탱되어지도록 하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좁은 한계들 안에 가두는 자들⁸⁾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통치를 돌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체와 그 각 부분들을 일반적인 운동에 의해서 운행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각각의 피조물의 활동 하나 하나를 특별하게 지배한다는 것은 아니라⁹⁾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칼빈은 인간이 만일 하늘, 공기, 땅, 물 등의 모든 운동에 노출되었었다면, 인간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고,¹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은 크게 무가치하게 감소되었을 것¹¹⁾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능이란 게으

8) Institutio 1559 I, xvi, 3: "...qui Dei providentiam coarctant tam angustis finibus, ac si libero cursu, secundum perpetuam naturae legem, ferri omnia sineret."

9) Institutio 1559 I, xvi, 4: "Non tam crassus est eorum error qui gubernationem Deo attribuunt, sed confusam et promiscuam, ut dixi; nempe quae orbis machinam cum singulis partibus generali motu volvat atque impellat, cuiusque vero creaturae actionem peculiariter non dirigat."

10) 칼빈은 인간이 우연의 지배하에 있을 때의 비참과 결과에 대하여 Institutio 1559 I, xvii, 10에서 논하고 있다.

11) Institutio 1559 I, xvi, 3: "quia nihil homine miserius, si ad quoslibet coeli, aeris, terrae, aquarum motus expositus foret. Adde quod hoc modo nimis indigne extenuatur singularis erga unumquemque Dei bonitas."

르고 한가하며 거의 잠이든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 있고 효과적이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는 활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해진 수로들을 통해 흐르도록 강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 하나의 특별한 운동들을 향해 주의 깊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¹²⁾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시편(115:3)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운동의 기원인(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제일동인(動因)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무의미한 것¹³⁾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칼빈은 선지자의 말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인간에게 운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본성에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동들을 자원적인 뜻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세상과 인간들의 일들과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destinatione)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¹⁴⁾이다. 칼빈은 이런 견해가 보편적으로 힘을 얻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맹목적이며 모호한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가해한 지혜(incomprehensibili sapientia)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며 자신의 목적대로(ad suum finem) 처리하시는 주요사(主要事)를 그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이 견해는 지배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만의 세상의 지배자

12) Loc. cit.: “Et sane omnipotentiam sibi vindicat ac deferri a nobis vult Deus, non qualem sophistae fingunt inanem, otiosam et fere sopitam; sed vigilem, efficacem, operosam, et quae in continuo actu versetur; neque etiam quae generale tantum sit principium confusi motus, ac si fluvium per alveos semel praefixos fluere iuberet, sed ad singulos et particulares motus intenta sit.”

13) Loc. cit.: “Nam quum in Psalmo (115, 3) dicitur facere quaecunque vult, certa et deliberata notatur voluntas. Insuper enim esset philosophico more interpretari prophetae verba, Deum esse primum agens, quia principium et causa est omnis motus.”

14) Institutio 1559 I, xvi, 4: “Atque ita inter Deum et hominem partiuntur: ut ille motionem huic sua virtute inspiret qua agere possit pro naturae sibi inditae ratione; hic autem actiones suas voluntario consilio moderetur. Breviter, Dei potentia sed non detinatione mundum, res hominum, ipsosque homines gubernari volunt.”

일뿐 실제에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지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재(主宰)하여서 주재하는 것들을 결정된 질서에 따라 (destinato ordine) 다스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¹⁵⁾ 묻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만사가 자연의 경향이 추진하는대로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라면, 과도하거나 때아닌 자연의 변화라든가 갑작스런 재난 등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연과학적 연구와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나 그의 심판들을 위한 자리가 남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¹⁶⁾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들의 결정이 인간에게 달려있었다는 견해를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그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부정할지라도, 선지자(렘 10:23)와 솔로몬(잠20:24)은 권능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확고하므로 그들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¹⁷⁾고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어거스틴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는 원리를 취하였는데, 이는 이유 없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우연이 인간의 의지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배제하였다¹⁸⁾고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칼빈은 이 교리를 비방거리로 만들려는 자들은 운명에 대한 스토익의 교의라고 중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과 어거스틴은 스토익학과처럼

15) Institutio 1559 I, xvi, 4: "Nunc enim sententiam illam, quae vulgo fere obtinuit, refutare propositum est, quae caecam modo nescio quam et ambiguam motionem quum Deo concedat, quod praecipuum est illi adimit, ut incomprehensibili sapientia quaeque dirigat ac disponat ad suum finem: atque ita verbo tantum non re Deum facit mundi rectorem, quia moderationem eripit. Quid enim, quaeso, est moderari nisi ita praeesse ut destinato ordine ea regas quibus praees?"

16) Institutio 1559 I, xvi, 5.

17) Institutio 1559 I, xvi, 6: "...penes hominem foret viarum suarum arbitrium. Negabunt forte, quia nihil sine Dei potentia valeat. Atquum prophetam et Solomonem constet non potentiam modo, sed electionem quoque ac destinationem Deo attribuere, nequaquam se expediunt."

18) Institutio 1559 I, xvi, 8: "...principium illud sumens, nihil esse absurdius quam fieri quidquam nisi ordinante Deo, quia temere accideret. Qua ratione et contingentiam quae ab hominum arbitrio pendet excludit."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의 영속적인 결합과 연속으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필연이라는 것을 고안해 내지 않는다¹⁹⁾고 하였다. 즉, 칼빈은 스토아 학파는 원인들의 고르디우스적 매듭²⁰⁾으로부터 그들의 운명을 엮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저들이 끊을 수 없는 원인들의 연쇄에 하나님 자신을 끌어넣어서, 우화처럼 황금빛의 사슬을 꾸며내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결박하여, 하나님이 보다 종속적인 원인들(*inferioribus causis*)에 종속되어 버렸다²¹⁾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그가 하시고 계실 것을 가장 먼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로 작정하시고 지금은 자신의 권능으로 작정하신 것을 집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와 통치자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과 땅과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들의 계획들과 의지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져서 그것에 의해 결정된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²²⁾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대(大) 바실이 참되게 말한 대로 운명과 우연은 이교도들이 그렇게 부르므로 그들의 의미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²³⁾고 하였다.

19) *Ibid.*, I, xvi, 8: "Non enim cum Stoicis necessitatem comminiscimur ex perpetuo causarum nexu et implicita quadam serie, quae in natura contineatur."

20)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나 일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길에 올랐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고르디우스라는 마을에 들어섰다. 이 마을 신전 기둥에는 한 대의 짐수레가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이 수레의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매듭은 너무 절묘하게 묶여 있어서 아무로 풀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는 신전으로 가서 단칼에 매듭을 베어 버렸다. 결국 그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http://www.yumkwang-gie.hs.kr/teach/sbjang/saegye/world5-1-2.htm#64>; Internet; accessed 1 October 2002).

21)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53: "Fatum suum texebant ex gordiano causarum complexu: in quem quum Deum ipsum in volverant, fabricabant aureas catenas, ut est in fabulis, quibus Deum vincirent, ut subiectus esset inferioribus causis."

22) *Institutio* 1559 I, xvi, 8: "sed Deum constituimus arbitrum ac moderatorem omnium, qui pro sua sapientia, ab ultima aeternitate decrevit quod facturus esset, et nunc sua potentia, quod decrevit exsequitur. Unde eius providentia non coelum modo ac terram et creaturas inanimatas, sed hominum etiam consilia et voluntates gubernari sic asserimus, ut ad destinatum ab ea scopum recta ferantur."

23) *Loc. cit.*: "...vere a Basilio magno dictum esse: fortunam et casum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의 우둔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 낮은 곳에 주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구별(*distinctio*)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작정되어져서 확실한 분배(*certa dispensatione*)에 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우연적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신실한 동료들과 함께 산 속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일행을 잃고 헤매다가 강도들을 만나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질 수 없는 경계들을 세우셨고 고정하셨을 지라도(욥14:5)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파악하는 한(*Quantum tamen mentis nostrae captus apprehendit*),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보인다²⁴⁾는 것이다. 그런 죽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볼 때 성질상 참으로 우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려되든 우리들의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 평가되든 그것들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적 안으로 우연을 이끌어져가고 있을 하나님의 섭리가 주재(主宰)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앙은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secretum Dei impulsum*)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²⁵⁾고 표현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자비 혹은 심판의 엄격함이 종종 섭리의 전과정에서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사가 되는 대로의 운명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고 돌게 된다는 생각이 잠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들을 공들처럼 던져놓고 놀이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육(*caro*)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힐 지라도, 만약 우리가 고요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로부터 하나님 안에 함께 서있는 그의 의논의 최상의 이유(*Deo constare optimam*

ethnicorum esse voces, quarum significatione piorum mentes occupari non debeant."

24) *Ibid.*, I, xvi, 9: "Quoniam tamen longe infra providentiae Dei altitudinem subsidit mentis nostrae tarditas, adhibenda est quae eam sublevet distinctio. Dicam igitur, utcunque ordinentur omnia Dei consilio certa dispensatione, nobis tamen esse fortuita. ...Quantum tamen mentis nostrae captus apprehendit, omnia illic fortuita apparent."

25) *Ibid.*, I, xvi, 9.

consilii sui rationem)를 마침내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혹은 그의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혹은 그들의 뒤틀린 감정들을 교정하시고, 방종을 길들이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무기력에서 일으키시며, 반면에 교만한 자들을 진토에 던지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시며 저들의 속임수들을 흩어 버리신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인들이 우리들에게 숨고 도망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는 다윗과 함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들을 아무도 당신에게 베풀 수 없나이다 내가 선포하고 말하고자하나 그것들이 내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무수히 많도소이다”(시40:5)라고 외쳐야만 한다²⁶⁾고 고백하였다.

칼빈은 비록 우리의 고통들 속에서 실로 항상 죄들이 만나러 달려와야만 하고, 그래서 형벌 자체가 우리를 회개에로 자극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각자가 받아 마땅한 대로 징벌하시는 것보다 아버지의 비밀한 뜻에 의한 것이 더욱 재가된 것(plus iuris)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하여(요9:3),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알려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재난이 출생들 자체에 앞서서 오는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를 주시는 것처럼, 실로 감정은 시끄럽게 소리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들이 순결하기만 하다면, 이 장관(壯觀)에서 그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난다고 증거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적정(modestia)에 붙잡혀 저야 마땅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유를 해명하라고 잡아당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의 의로운 원인인 만큼, 감추어진 그의 심판들이 우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경외되어져야 한다²⁷⁾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

26) Ibid., I, xvii, 1.

27) Ibid., I, xvii, 1: "Etsi enim semper in aerumnis nostris occurrere debent peccata, ut poena ipsa nos ad poenitentiam sollicitet, videmus tamen ut Christus arcano patris consilio plus iuris asserat, quam ut quemque prout meritus est castiget. Nam de caeco nato ait (Ioann. 9,3): neque hic peccavit, neque parentes eius; sed ut manifestetur gloria Dei in ipso. Hic enim obstrepit sensus, dum ipsos natales praevenit calamitas, ac si Deus parum clementer

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판단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지혜²⁸⁾의 순수한 빛으로부터 바로 이 일들 자체를 예정된 최상의 질서에 따라 조절(optime composito ordine temperare)하시고 바른 목적 안으로 지배(dirigere in rectum finem)하신다는 것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으로이거나 그 자체의 본성에 따른(suapte natura) 필연성이 아니라²⁹⁾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달리 스콜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마찬가지로 결과적 필연과 결과의 필연의 구별을 굳이 반대하지 않고, 다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의 질서니 원인이니 목적이니 필연성이니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³⁰⁾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의논(incomprehensibili Dei consilio)에 의해서 지배되며,³¹⁾ 세계에서 보여지는 일체

immeritos sic affligeret. Atqui in hoc spectaculo fulgere gloriam patris sui testatur Christus, modo puri sint nobis oculi. Sed tenenda modestia est, ne ad causam reddendam Deum trahamus; sed ita revereamur occulta eius iudicia, ut nobis eius voluntas iustissima sit rerum omnium causa."

28)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에 따른 섭리를 그의 지혜(sapientia), 사랑(favor), 권능(potentia), 공의(iustia)등에 돌리고 있으므로, 어느 한 속성-예를 들면, 사랑이나 공의-에만 제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Institutio 1559 III, xxiii, 7: "Ut enim ad eius sapientiam pertinet, omnium quae futura sunt esse praescium, sic ad potentiam, omnia manu sua regere ac moderari.";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55: "Quod si de causis eventuum non liqueat, ut saepe videntur quae accidunt praeter rationem accidere: tamen ne sic quidem desinent piaae mentes, et sapientiae et iustiae laudem tribuere Deo.")

29) Ibid., I, xvi, 9: "Interea quod statuit Deus, sic necesse est evenire ut tamen neque praecise, neque suapte natura necessarium sit."

30) Ibid., I, xvi, 9: "...sed quoniam eorum quae eveniunt, ordo, ratio, finis, necessitas, ut plurimum in Dei consilio letet, et humana opinione non apprehenditur"

31) Ibid., I, xvii, 2: "...incomprehensibili Dei consilio quidquid in mundo accidit gubernari,"

의 변동은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ex secreta manus Dei) 온다고 믿었다.³²⁾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만이 죽을 경우, 하나님에게 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지진을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 지진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시든, 그 사람에게 독특한 병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을 살리실 경우, 지진을 사용하시되, 건물이 무너지는 방식과 다른 생명의 조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만물의 운행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손과 팔, 뇌 혹은 마음, 그리고 우주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섭리의 길을 의미할 경우, 더욱 더 만물의 전체성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의 말대로 거기에 질서가 있든, 이유가 있든, 혹은 목적과 필연성이 있든, 모든 것이 동시에 있든, 그 전체성을 인간이 그의 표상능력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다면, 만물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게 사상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해가 되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오류를 넘어 인간의 본질상 오류이다. 한 계열(eine Reihe)에 제한되어 한 점을 상징하는 칸트의 선험적 가상의 오류³³⁾나 인간의 수 많은 단편적 오류들과 다르다³⁴⁾고 할 수 있다.

32) Ibid., I, xvi, 9: "sed indubie sic habendum est, quaecunque cernuntur in mundo conversiones, ex secreta manus Dei agitatione prodire." 또한, 칼빈은 Ibid., I, xvi, 7에서 "우리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꺼이(praesto) 순종에로 착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대로 적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일반적 섭리는 피조물들 안에서 그렇게 강하여서 자연의 질서를 지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탄할 만한 의논에 의해서 확고하고 특유한 목적 안으로 순용되어진다(...sciamus creaturus omnes sursum et deorsum praesto ad obsequium adesse, ut eas in quemcunque vult usum accomodet. Unde colligitur, non tantum generalem eius providentiam vigere in creaturis, ut naturae ordinem continuet; sed in certum et proprium finem aptari, admirabili eius consilio.)"고 표현하였다.

33) Immanuel Kant,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2001), 360~361: 칸트는 선험적 이념의 셋째 모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체가 전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항상 제 2차의 시초만이 있고, 처음의 시초는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차로 소급하는 원인적 계열의 완료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험적으로 충분히 규정된 원인없이는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 자연법칙은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일체의 원인성이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명제는, 이 명제의 무제한의 보편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에 따르는 원인성이 유일한 원인성이라고 상정(想定)될 수는 없다. 그러면, 자연법칙과는 다른 한 원인성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 원인성은...자연법칙을 따라서 진행되는 현상들의 계열을 스스로 시작하는 원인의 절대적 자발성이

이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신인동형동성론자(Anthropomorphitae)에 대한 비판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을 입, 귀, 눈, 손, 발과 같은 것들을 가지신 분으로 자주 묘사되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표현방식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협소함에 적응케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³⁵⁾고 하였다.

B.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 (*causae propinquae et remotae Calvinii*)

다. 따라서 그것은 선험적 자유(transzendente Freiheit)다. 선험적 자유 없이는, 자연의 경과에 있어서조차 현상들이 계속하는 계열은 원인 측(側)으로 봐서 결코 완전하지 않다 & 작용하는 것의 개시(開始)는 어느 것이나 아직 작용하고 있지 않는 원인의 상태를 전제한다. 작용의 역학적인 최초의 시작은, 이 시작의 원인보다 앞에 있는 상태와는 인과적 관련을 맺지 않는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선험적 자유 [선험적 의미의 자유]는 인과법칙에 위반한다. ...자유는 어떤 경험 중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생각의 산물이다. ...그러하되 우리는 자연 법칙 대신에 자유의 법칙(Gesetze der Freiheit)이 세계진행의 원인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자유가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 자신 자연임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자연과 선험적 자유와의 구별은 합법칙성과 무법칙성과의 구별과도 같다. 합법칙성은 사상(事象)들의 유래를 원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부단히 소급해 가려는 곤란한 짐을 오성에 지운다. 사상들의 원인성은 항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칙성은 그 배상으로서, 경험의 철저하고도 합법칙적인 통일을 약속한다. 이에 반(反)해서 자유라는 기만은 탐구적 오성에 대해서 원인의 사슬의 정지를 약속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오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작용을 개시하는 무조건적[절대적] 원인성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원인성이란 그 자신 맹목적이므로, 보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험만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길잡이를 절단하는 것이다.”

34)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2001년 2학기 안양신대원 Th.M. 강의안, p.16. 여기에서 김영규는 “인간의 손과 팔 혹은 뇌 혹은 마음을 하나님의 인격활동에 대한 어떤 비유로 생각하고, 손과 팔과 머리가 없이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35) Institutio 1559 I, xiii, 1: “Proinde tales loquendi formae non tam ad liquidum exprimunt qualis sit Deus, quam eius notitiam tenuitati nostrae accommodant.”

1. 칼빈의 인과론에 대한 정의

칼빈은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이며 주요한 원인(*summam et praecipuam rerum omnium causam esse Dei voluntatem*)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필연이다(*Dei voluntas sit rerum necessitas*)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처음에 들으면 심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은 창조한 것들의 은밀한 제반원인들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고 그것들의 제원인을 창조한 것들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셨다.³⁶⁾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종속적인 여러 원인들이 그것들의 결과로 나오는 일이 가능케 하였으며,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닌 방법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반면 보다 높고 먼 제반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 속에 감추시고 그것으로부터 가능케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셨다³⁷⁾고 하면서, 그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심으신 것보다 감추어진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진실한가 되묻고 있다. 칼빈은 그러므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들을 그의 의지대로 다스리셔서 모든 인간의 의논들과 행동을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고정된 목적으로 확고하게 결정하시기 때문³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팔이 외적인 행동들에 선행(*praesesse*)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정들도 다스리시며, 행위의 결과에 앞서서(*praecedit*) 인간들의

36)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60: "Habet in se ipso Deus absconditas quorundam factorum causas, quas rebus conditis non inseruit"

37) Loc. cit.: "Item quod subiicit explicandi gratia, quod sic causas inferiores condiderit Deus ut ex illis esse illud, cuius causae sunt, possit, sed non necesse sit: altiores autem et remotas sic in se absconderit, ut ex eis esse necesse sit, quod ex illis fecit, ut esse possit"

38) Loc. cit.: "Quid enim verius, quam Deum in creaturis regendis plus aliquid apud se habere reconditum, quam earum naturis indiderit? Atqui, omnium quae geruntur, prima causa ideo censeatur eius voluntas, quia naturas a se conditas arbitrio suo ita regit, ut cuncta hominum consilia et actionis in finem a se praefixum destinet."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 자체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성취하도록 하시지 않는다³⁹⁾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에게 기구라는 것은 모든 행동들의 원작자와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팔이 인도자로서 필연적으로 선행하는 것⁴⁰⁾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칼빈의 입장에 따라,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종속적인 원인들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유한 본성에 따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먼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로서의 필연성을, 종속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필연적이지 않은 피조물의 여러 가지 고유한 성질을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의지의 경우에는 의지로서의 본성에 고유한 자원적이고 임의적적인 성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¹⁾.

칼빈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요한 원인(제일 원인) 혹은 보다 높은 원인(*superior causa*)에 대한 상대어로서 종속적인 원인들(보다 낮은 원인들)⁴²⁾이 그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

39) Ibid., 358: "Unde perspicuum fit, quod iam attigeram, non minus interiores affectus regere Dei manum, quam externis actionibus praeesse: neque Deus, quae decrevit, hominum manu perficeret, nisi in ipsorum cordibus operaretur ipsum velle, quod operis effectum praecedit."

40) Ibid., 288. "Organa ubi audimus, tum Deum praesidem actionis totius et autorem, tum manum eius directricem praecedere necesse est."

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음과 같은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특히 *yet*을 사용하여 종속적인 원인을 해치지 않는 것과, *but rather*를 사용하여 종속적인 원인으로서의 관계를 표명했다고 판단된다. THE CONFESSION OF FAITH, John Walter Ross: Convener, Publications Committee(Scotland: 1983), Chap.III.-Of God's Eternal Decree. I.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yet so, as thereby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nor is violence offered to the will of the creatur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42) 칼빈의 *inferior causa*라는 용어는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서 자주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Institutio* 1559판에서도 I, xvii, 6에서 1회, I, xvii, 9에서 2회, 그리고 III, xiv, 21에서 1회 사용되었다. 칼빈에게 나타나는 기구관념의 내용과도 종속적인 원인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superior causa*는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307쪽에서 발견되는데 세밀한 색인작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라는 용어는 인간의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피조물의 창조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천사와 사탄의 창조

칼빈은 바울이 선택받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딤후5:21)은 유기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⁴³⁾하였다. 이런 입장에 따라, 칼빈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지고 있을 것으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역자들(ministri)이라고 표현하였다⁴⁴⁾. 따라서 그는 천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역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도록 사용하시는(utitur) 천상의 영들⁴⁵⁾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 보이시는 기구들(instrumenta)⁴⁶⁾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한 천사들이 누리는 일체의 축복의 창시자(auctorem)도 그리스도이심⁴⁷⁾(골1:16, 20)을 언

43) Institutio 1559, I, xiv, 16: "Et Paulus electos angelos nominans(1Tim.5,21), haud dubie reprobos tacite opponit."

44) Institutio 1559 I, xiv, 4: "Angelos sane, quum Dei sint ministri ad iussa eius exsequenda ordinati, esse quoque illius creaturas, extra controversiam esse debet."

45) Institutio 1559 I, xiv, 5: "Angelos esse coelestes spiritus quorum ministerio et obsequio utitur Deus ad exsequenda omnia quae decrevit, passim in scriptura legitur."

46) Ibid., I, xiv, 5: "...sine honore praeteriri ea instrumenta, quibus numinis sui praesentiam specialiter Deus exhibet."

47) Institutio 1559, I, xiv, 10. 참고로 어거스틴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And though their good will effected that they did not turn to themselves, who had a more stinted existence, but to Him who supremely is, and that, being united to Him, their own being was enlarged, and they lived a wise and blessed life by His communications to them, what does this prove but that the will, however good it might be, would have continued helplessly only to desire Him, had not He who had made their nature out of nothing, and yet capable of enjoying Him, first stimulated it to desire Him, and then filled it with Himself, and so made it better? ...But the angels who, though created good, are yet evil now, became

급하였다.

한편, 사탄에 대하여 칼빈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요일3:8)는 말씀은 요한이 마귀를 모든 악과 불의의 창시자요 지도자이며 설계자라고 이해한 것⁴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본성으로 돌리는 이 악의(惡意)는 창조로부터가 아니라 타락에서부터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 받아야 할 것들은 배반과 타락으로부터 왔기 때문⁴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사탄의 본성에 대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타락되어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기구들(*instrumenta perditionis*)로 창조되었다⁵⁰⁾고 표현하였다. 예컨대, 칼빈은 사울을 괴롭힌 여호와의 신이 악신

so by their own will. And this will was not made evil by their good nature, unless by its voluntary defection from good; for good is not the cause of evil, but a defection from good is. These angels, therefore, either received less of the grace of the divine love than those who persevered in the same; or if both were created equally good, then, while the one fell by their evil will, the others were more abundantly assisted, and attained to that pitch of blessedness at which they became certain they should never fall from it, as we have already shown in the preceding book. We must therefore acknowledge, with the praise due to the Creator, that not only of holy men, but also of the holy angels, it can be said that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their hearts by the Holy Ghost, which is given unto them.'"(Augustin, *City of God*, Book 12, Chapter9, Vol. II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ed., Philip Schaff, trans. Marcus Dods [CD-ROM], AGES Digital Library Collections, 1997.)

48) *Institutio* 1559 I, xiv, 15: "Hoc etiam significat Ioannes in epistola sua (3, 8), quum scribit eum ab initio peccare. Siquidem intelligit, ipsum omnis malitiae et iniquitatis autorem, ducem, architectum."

49) *Institutio* 1559, I, xiv, 16: "Atqui quum a Deo conditus sit diabolus, hanc malitiam quam eius naturae tribuimus, non ex creatione, sed ex depravatione esse meminerimus. Quidquid enim damnabile habet, defectione et lapsu sibi accersivit."

50) Loc. cit.: "...contenti simus hoc breviter habere de diabolorum natura: fuisse prima creatione angelos Dei, sed degenerando se perdisse et aliis factos esse *instrumenta perditionis*."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since even the devil himself is not separated from the power of the Omnipotent, as neither from His goodness. For whence do even the evil angels subsist in whatever manner of life they have, except through Him who quickens all things?"[Augustin, *On the Trinity*, XIII, xii, 16, Vol. III of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불경건한 왕의 죄들이 말하자면 채찍에 의해서 벌해지고 있었기 때문⁵¹)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이런 내용들을 우주와 만물의 창조(mundi et rerum ominum creatione)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짓 신들과 참된 하나님을 구별하는 확실한 표지들로서 반복하고 있는 사상이다.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와 유기자의 창조

칼빈은 예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대해서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 앞에 고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creantur)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정되어지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런 혹은 저런 목표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⁵²). 그는 하

Fathers, ed., Philip Schaff, trans. Arthur West Haddan (Michigan: Wm. B. Eerdmans, 1980.)]

51) Institutio 1559 I, xiv, 17: "Hac ratione et spiritus Domini malus dicitur qui torquebat Saul, quod eo veluti flagello puniebantur impii regis peccata (1 Sam. 16, 14 et 18, 10).

52) Institutio 1559 III, xxi, 5: "Pra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onditione creantur omnes;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eordinatur. Itaque, prout in alterutrum finem quisque conditus est, ita vel ad vitam vel ad mortem praedestinatum dicimus." 같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Theodore Beza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T. Beza, Treasure of Truth, The Second Chapter, The Second Aphorisme (London, 1581): "The selfesame God from everlasting hath purposed and decreed in himselfe and decreeds in himselfe, to create all things at their seasons to his glorie, but namely men, and that after two sortes altogether divers the one to the other, to wyt, in suche manner that some whome it pleaseth him according unto his secrete will, hee maketh through mercy partakers of his glorie whom out of the worde of God we do call vesselles of honour, elect or chosen, some of the promise, and Predestinate or foreordained unto salvation: and in other, whome also it pleaseth him to stirre up to that ende, hee sheweth his wrath and his power, that in them also he might be glorified, whome likewise we call vesselles of dishonour and wrath, and unapt to every good worke."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정하셨던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그는 유기자들에 대하여 그의 심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그의 의논을 실행하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기자들을 그의 진노의 기구들(organa)과 엄격함의 실례들⁵³⁾이 되도록 창조하셨다(creavit)고 하였다.⁵⁴⁾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유기자들이 엄격함의 실례들이라는 것은 종과 같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걱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기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실한 자들에게 인내를 교육시키기 위함이며 적대자들에게는 그들에 의해서 저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가하시기 위함⁵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때에는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죄악이 벌해지고 있기 위하여 그들을 채찍처럼 사용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마치 목이 비

53) W. Twiss, *A Treatise of Mr. Cottons, Clearing certaine doubts concerning predestination* (London, 1646), 43: "I would rather distinguish into a double act. 1. whereby, without all respect of good or evil in the men of this world, God ordained them unto judgment, according to their works. Ezech. 33.20. to judgment, I say, not of condemnation, which presupposeth sinne in the creature to be condemned; but judgment (I mean) of just retribution, whereby God is willing to deale with them, according to their works in justice; justice I say, as well distributive, to reward them with life, if they continue in obedience; as vindicative, to punish them to death, if they provoke him by carelesse and wilfull disobedience. Hitherto, even to this act, the hatred of God to Esau reached. 2. Whereby, upon the presupposall of the carelesse or wilfull disobedience of the world, either in refusing the meanes of grace in Christ, or abusing other talents and helps of the knowledge of God in nature, God rejecteth, or reprobate them in from all hope of life, and purposeth to condemn them for their sinnes, to the glorifying of his power, justice and wrath." 또한, 트위스는 같은 책 254쪽에서 무조건적인 작정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Punishment of sin always presupposeth (I confesse) sin; but I deny that the decree of punishing sin presupposeth sin"

54) Institutio III, xxiv, 12: "Quemadmodum suae erga electos vocationis efficacia, salutem, ad quam eos aeterno consilio destinarat, perficit Deus, ita sua habet adversus reprobos iudicia, quibus consilium de illis suum exsequatur. Quos ergo in vitae contumeliam et mortis exitium creavit, ut irae suae organa forent, et severitatis exempla, eos,..."

5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55: "...reprobos quoque irae Dei esse organa, quibus patrum fideles suos erudiat ad patientiam, patrum hostibus poenas infligat, quales merentur"

틀려져서 저들을 끌어내시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종들로 만드신다⁵⁶⁾고 표현하였다. 예컨대, 바로의 가혹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출3:21)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주께서 한편으로 자신의 것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바로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강박하게 되어졌겠는가⁵⁷⁾ 묻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바로가 작정된 것은 그의 강박에 의해서 선민의 구원이 증시되어지고 있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유기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그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 세워졌다⁵⁸⁾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칼빈은 우리의 선택의 최고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신적 은혜를 찬송이 되기 위함⁵⁹⁾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칼빈은 주님은 자신의 모든 일들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이라는 이유를 가지신다⁶⁰⁾고 하였으며, 유기와 선택의 원인을 오직 같은 신적 의지 안에 두고 있다.⁶¹⁾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요약하면서, “유기자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 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가?(*Quis reprobos creavit, nisi Deus? Et cur, nisi quia voluit?*)”⁶²⁾라는 말로 어거스틴⁶³⁾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56) Ibid., 356: “Porro Deus ipse nunc impiis, ad puniendam hominum peccata, tanquam flagellis utitur: nunc, quasi obtorto collo eos traheret, beneficentiae suae ministros esse cogit.”

57) Ibid., 357.

58) Ibid., 283: “...in hunc finem sepositos Dei consilio esse reprobos, ut suam in illis potentiam demonstraret. ...comprehenderet Paulus Dei consilium, quo Pharaon ad redemptionem populi sua contumacia illustrandam ordinatus erat.”

59) Institutio 1559, xxii, 3: “...huc pertinere totam electionis nostrae summam, ut simus in laudem divinae gratiae.”

6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405: “Gloriae suae rationem in factis suis omnibus habet Dominus. Nempe hic universalis est finis.”

61) Ibid., 287: “id ego verum esse ita fateor, ut gratuito amori quo electos complectitur, iusta in reprobos severitas in causa pari communi respondeat.”

62) Ibid., 267.

이런 입장에서 칼빈이 성경을 주석한 몇 군데를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을 설명하면서, 창세 전의 선택⁶⁴⁾과 오직 그 원인자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크게 강조⁶⁵⁾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로마서 9장21절을 주석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그가 기뻐하는 대로 어떤 형태를 주든지 간에, 그가 진흙으로부터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든지(creaverit) 간에, 그는 그것으로부터 아무 것도 취하지 않으신다⁶⁶⁾고 하였다. 피기우스가 예레미야의 단

63) Ibid., 360: 어거스틴은 “유기자들이 진노의 그릇들로 만들어졌고, 택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의 하나도 이유 없이 혹은 우연히 창조하지 않았고 저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선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서 인간적인 본성을 창조하고 저들에 의해서 현 세속의 질서를 장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Nam cateri, inquit, mortales, qui ex isto numero non sunt, et ex eadem quidem massa, ex qua et isti, sed vasa irae facti sunt, in utilitatem nascuntur istorum. Non enim quemquam eorum Deus temere ac fortuito creat, aut quid de illis boni operetur ignorat: quum et hoc ipsum bonum operetur, quod in eis humanum creat naturam, et ex eis ordinem saeculi exornat.)”이라고 표현하였다.

64) 칼빈은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277쪽에서 이삭이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되었다(antequam in utero conceptus esset Issac, fuisse a Deo ceoptatum)고 언급하였다. 한편, 폴 베인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Paul Bayne, ENTIRE COMMENTARY UPON THE WHOLE EPISTLE OF THE APOSTLE PAUL TO THE EPHESIANS (London, 1643), 33: “there understand nothing but eternity; but because within eternity God doth foresee the things which are done in time, and therefore though he chose from eternity, nothing hinderth (as some thinke) but that he might foresee some thing whereupon to choose; therefore this phrase may be extended not onely to respect the actual creation, but the Decree it selfe of the worlds being; to this sense, that he chose his in order of nature, before by his Decree he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6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71: “Et Paulus iterum confirmat, non aliunde inductum fuisse Deum: sed ipsum sibi fuisse autorem et causam, cur nondum creatos eligeret, quibus postea et fidem conferret. Secundum propositum eius, inquit, qui omnia efficit secundum consilium voluntatis suae (Eph. v.11)”

66) J. Calvinus, Epst. Pauli ad Romanos caput ix. 21. : “Porro in aptanda similitudine hoc considera, quemadmodum figulus nihil luto adimit, quamlibet illi formam dederit: ita quacunq; hominem conditione creaverit Deus, nihil ei adimit.”

만일 짐승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창조자와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당장 화를 내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전 인류가 짐승들 위에 자신의 소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적어도 더욱 많은 우월성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확실히 너무 미친 것⁷³⁾이라고 표명하므로, 인간의 탁월한 우월성과 모든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하나님의 지위의 고귀함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그러한 정도의 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오직 그의 뜻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다⁷⁴⁾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질서적 의지와 절대적 의지에 대해 말하는 소르본느의 소피스트들을 비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의로부터 분리(Dei potentiam separare a iustitia)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사이에는 조화와 일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을 설교하는 신실한 자들은 동시에 그가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법인 한에서가 아니면(Non quod legi subiectus sit Deus, nisi quatenus ipse sibi lex est)이라고 표명하므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가 최고로 확실한 의의 규범(certissima iustitiae regula)임을 천명⁷⁵⁾하였다.

72)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80: "...quod potestatem accipit pro facultate aut potentia, quum dingnationem honoris potius significet."

35) Ibid., 286: "Si pecudes loqui possent, ac cum opifice suo contenderent, quod non homines, ut nos, sint factae: neminem fore nostrum qui non protinus succenseat. Iam vero quid nos putamus esse? Nimium certe desipit, qui non plus saltem aliquanto praecellentiae Deo tribuit, quam sibi et generi humano supra pecudes vindicat."

74) Ibid., 310~311: "Ego autem ex adverso contendo, adeo nihil esse in Deo inordinatum, ut inde potius fluat, quidquid est in coelo et in terra ordinis. Quum ergo in summum gradum evehimus Dei voluntatem, ut sit omni ratione superior, absit ut eum quidquam nisi summa ratione velle imaginemur: sed simpliciter sentimus, eum iure suo tantum habere potestatis, ut solo eius nutu contentos esse nos oporteat."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성과 이유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최상의 질서요, 이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75) Ibid., 361.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과(功過)와 관계없이 오직 그의 의지에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어 졌다면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있다고 한다고 하였다. 만일 언제든 이런 생각이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런 선동들이 분쇄되어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무장되어질 것인데 즉, 만일 그들이 신적 의지-그 자체가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고 또 그래야만 마땅한-의 원인을 묻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사려한다면 이라고⁷⁶⁾ 칼빈은 답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라고 물으면서 신적 의지의 이유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원인을 논증하는 자들에 대하여, 칼빈은 신앙의 숭경과 호기심의 무모함의 차이를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믿어야만 하는 것들을 인간적으로 품게되는 상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또한 형식적 원인의 자리에 목적인을 대신 끌어들이고 있다(causam finalem pro formali in medium affrens)고 지적⁷⁷⁾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의 경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문제가 첨예화되는 가운데 타락전과 타락후 선택설이 논의되고 있다. 피기우스는 하나님은 그 자신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전혀 그 자신의 영광스런 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의 무한성(propter suae bonitatis immensitatem) 때문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비록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인류를 그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tametsi nullius egentem, hominum tamen genus in suam gloriam creasse)고 답했다⁷⁸⁾(잠16:4, 출9:16). 계속해서

76) Institutio 1559 III, xxiii, 2.

7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12.

78) Ibid., 293. 피기우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의 위협에 대하여 트위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There is, you say, a goodness objective precedent in order of nature to the act or exercise of Gods will. What I pray? is it any such as binds God to the willing of any outward thing? take heed what you say, lest you fall into Atheisme by making God a necessary agent, or that he was bound in the way of justice to make the world: whence it followeth, that the world was everlasting"(W. Twiss, A Discovery of D. Jacksons vanitie, p.457). 비슷한 맥락에서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Hence, it is not possible nor even permissible for us to look for some deeper ground of things than the

피기우스가 잠언 16장4절⁷⁹⁾의 말씀과 관계해서 비난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였었다면, 택자와 유기자 사이의 구별은 사람의 타락 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다는 고백이 동시에 필연적이었을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서 피기우스는 유기자들이 아담 안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전에 이미 멸망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고 비난하였다.⁸⁰⁾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스스로 작정하였던 대로, 그렇게 유기자들의 멸망이 죄로 지금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는 결과가 그 원인보다 앞서게 하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⁸¹⁾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사람은 자신의 제작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면서, 피기우스가 가까움과 먼 원인들(*causas propinquas et remotas*)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 없이 하나님의 판

will of God, because all such attempts result in seeking a ground for the creature in the very essence of God, in robbing it of its creatural, i.e., contingent character and making it necessary, eternal and divine. In that sense it is true that God's will which has the creature as its object is free. But this freedom does not exclude the other divine attributes: wisdom, goodness, justice, etc."(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235).

79) 칼빈은 *Institutio* 1559 III, xxiii, 6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보라,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에게 속한 것인 만큼, 그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확실한 죽음에 빠져서 태어나 그들의 멸망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도록 작정하셨다(*Ecce, quum rerum omnium dispositio in manu Dei sit, quum penes ipsum resideat salutis ac mortis arbitrium, consilio nutuque suo ita ordinat, ut inter homines nascantur, ab utero certae morti devoti, qui suo exitio ipsius nomen glorificent*).”

8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96: “Tertium fimem, qui satis clare et discerte illo Solomonis loco exprimitur, quod propter se Deus omnia creavit, etiam impium ad diem malum(*Prov. 16,4*), hac ratione impugnat: Quod si Deum respexisse dicimus, quid cuique futurum esset, simul necesse erit fateri discretionem inter electos ac reprobos priorem fuisse hominis lapsu, in mente divina. Unde sequetur, non damnari reprobos, quia perditii fuerint in Adam, sed quia ante lapsum Adae iam exitio devoti erant.”

81) *Ibid.*, 297: “quod sicut Deus ante conditum Adam apud se decreverit, quidnam illi et posteris futurum esset, iam peccato imputari reproborum interitus non debeat: quia absureum esset, effectum facere sua causa priorem.”

단들에서 있어서 모든 것들을 혼돈하고 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⁸²⁾고 하였다. 즉, 어거스틴의 근거에 따라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 상호 조화하는 그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대칭성(*optimam et aptissimam symmetriam*)을 피기우스는 논의하지 않았다⁸³⁾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를 둘러 본 후에도, 가장 가까운 원인이 자신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파멸의 죄책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⁴⁾ 동시에 절도있게 생각해야 할 그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감춰어진 뜻을 우리의 신앙이 멀리서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⁸⁵⁾고 그는 반문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보편 구원론의 입장에서 어거스틴과 경건한 자들을 비난하는 피기우스의 상상에 대해 유기자들은 보편적 죄책에 의해 결박되어져서 죽음 속에 버려져 의로운 심판을 받고있다⁸⁶⁾고 한 어거스틴의 말로 비판하였다.

따라서 비록 칼빈이 태초에 사람의 상태가 그 때까지 순수하게 남아 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다는 창조전 작정론과 지금 파멸

82) Ibid., 296.

83) Ibid., 297.

84) Ibid., 296: "Respondeo, nihil mirum esse, si tam indiscriminate (ut eius verbis utar) omnia miscet Pighius in Dei iudiciis, quando inter causas propinquas et remotas non discernit. Postquam huc illuc circumspexerint homines, quò tamen interitus sui culpam transferant, non invenient: quia proxima in ipsis causa residet."

85) Ibid., 297: "quid etiam impedit, quin arcanum Dei consilium, quo praeordinatus fuerat hominis lapsus, qua decet sobrietas, procul adoret fides nostra..." 이것은 예정이 논의될 때, 처음부터 항상 지속적으로 주장된 내용이며, 또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Ibid., 313~314: "Quum de praedestinatione sermo habetur, inde exordiendum esse constanter semper docui, atque hodie doceo, iure in morte relinqui omenes reprobos, qui in Adam mortui sunt ac damnati...ita nemini causam esse, cur de nimio rigore queratur: quando reatum in se omnes inclusum gestant." 칼빈은 *Institutio* 1559 III, xxiii, 9에서 "비록 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사람이 재난 아래 놓이도록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취했다(*tametsi enim aeterna Dei providentia in eam cui subiacet calamitatem conditus est homo, a se ipso tamen eius materiam, non a Deo sumpsit.*)"고 하였다.

86) Ibid., 297~298: "vere et merito colligit, universali reatu sic obstrictos teneri reprobos, ut in morte relictis, iustum iudicium sustineant."

된 무리로부터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선택사이를 구별하고 있을지라도,⁸⁷⁾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표현된 선택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그의 주된 초점은 아니었으므로,⁸⁸⁾ 위에서 살펴 본 피기우스에게 대답한 전체적인 답변의 틀들과 영원한 예정에 관한 그의 전반적인 신학의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그를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타락전 선택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피조물의 악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사탄의 악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불화와 전쟁이 있다는 것에 관한 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고 허락하시고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⁸⁹⁾고 강조하였다. 즉, 그는

8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97: "Monendi autem sunt lectores, peraeque a Pighio utrumque damnari: Deum ab initio, quum adhuc integer foret hominis status, quod postea futurum esset, decrevisse: et nunc ex perdita massa eligere quos voluerit."; 313: "Respondeo, tria hic esse consideranda: primo aeternam Dei praedestinationem, qua de toto genere humano, et de singulis hominibus quid futurum esset statuit, antequam cecidisset Adam, fixam et decretam fuisse: deinde, Adam ipsum, pro defectionis suae merito, esse morti addictum: postremo, in eius iam perditum et desperatum personam sic damnatam esse totam progeniem, ut Deus, quos inde gratuito eligit, adoptionis honore dignetur."

88) 트위스는 예정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massa nondum condita*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W. Twiss, *A Treatise of Mr. Cottons, Clearing certaine doubts concerning predestination* (London, 1646), 41: "Likewise, in my opinion, they doe mistake, who take the Synod of Dort to maintaine the consideration of *massa corrupta*, as precedent to Election, though they beginne with signifying what God purposed to bring to pass, upon the fall of mankind, in Adam. And Calvin in his answer to Pighius confesseth, that the safest course is to treat of predestination, upon the consideration of the corrupt masse in Adam."

89) Institutio 1559 I, xiv, 17: "Quantum vero ad discordiam et pugnam attinet quam satanae cum Deo esse dicimus, sic accipere oportet, ut fixum interim illud maneat, illum, nisi volente et annuente Deo, nihil facere posse."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동시에(simul) 우리는 이 반항과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⁹⁰⁾고 하였다. 계속해서 칼빈은 “마귀는 본성적으로 반역적인 한, 조금도 신적 의지에의 순종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완고와 반역에로 이끌린다. 그러므로, 그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으로부터 사탄은 하나님께 격렬하게 의도적으로 반항한다. 이 사악함에 의해서 자극되어져서 마귀는 하나님께 가장 반역적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그들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고삐로 그를 잡아매어 놓으셨고 제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들만 수행되어진다.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그의 창조자에게 순복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그를 추진하시든지,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⁹¹⁾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prout libitum est*) 더러운 영을 이리 저리로 추진하시고 그가 이 조종을 그렇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지고 있음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매복에 의해서 습격하고, 습격들로 근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싸워지고 있음으로써 압박하고, 심지어 자주 지치게 만들고, 패배시키시며,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정복하지 못하고 박멸하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반면 칼빈은 그들은 불경건한자들을 속박하여 끌고 다니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주권을 행사하며,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수치스러운 것으로 오용(誤用)한다⁹²⁾고 하였다.

90) *Institutio* 1559 I, xiv, 17: “Porro quum dicimus satanam Deo resistere, et illius opera cum huius operibus dissidere, hanc repugnantiam et hoc certamen a Dei permissione pendere simul asserimus.”

91) *Ibid.*, I, xiv, 17.

92) *Ibid.*, I, xiv, 18: “Iam vero quia Deus immundos spiritus, prout libitum est, huc illuc inflectit, hoc regimen ita temperat, ut fideles pugnando exerceant, adorianur insidiis, incursionibus sollicitent, pugnando urgeant, fatigent etiam saepe, conturbent, pavefaciant, ac interdum vulnerent, sed nunquam vincant nec opprimant; impios autem subactos trahant, in eorum animis et corporibus imperium exerceant, ad omnia flagitia velut mancipiis abtantur.”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첫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최초의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quando non nisi propria voluntate cecidit*)고 함으로,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자신의 축복들을 부패시키기 전까지 그의 정신과 의지는 최고로 곧았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다⁹³⁾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칼빈은 범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본성을 주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매우 악하다고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의지를 따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하신 대로 주시기 때문⁹⁴⁾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왜 하나님께서 인내의 능력으로 아담을 붙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의논(*consilio*)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아담이 원하기만 했더라면, 실로 받을 수 있었지만, 받을 수 있었던 원함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함은 인내를 뒤따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는데, 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멸망을 초래할 만큼 그가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게다가 실패할(*etiam caducam*) 의지를 주고 계셔서 저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이끌어낼 기회가 부과되어져야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⁹⁵⁾고 칼빈은 강조한다.

93) *Institutio* I, xv, 8. 칼빈은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314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던 것을 그가 피할 수 없었다는 핑계에 대해, 그의 자발적인 범죄는 그의 죄책을 확립하는데 충분한 것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죄의 고유하고 진정한 원인은 드러난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아주 멀리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논에 있지 않다고 구별하였다.

94) *Loc. cit.*: "...quando in eius arbitrio fuit quantulumcunque vellet dare"

95) *Institutio* 1559 I, xv, 8: "Cur autem perseverantiae virtute eum non sustinuerit, in eius consilio latet;...Acceperat quidem posse, si vellet, sed non habuit velle quo posset; quia hoc velle sequuta esset perseverantia. Excusabilis tamen non est, qui tantum accepit, ut sibi sponte accerseret

칼빈은 혹 사탄의 선동(instigatione)⁹⁶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아내의 유혹들에 의해 속게 되었다고 아담이 핑계하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내부에 불신이라는 치명적 병독과 야심이라는 사악한 조연자와 교만이라는 악마적 부채가 발견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악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연으로부터 파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더욱 조금도 핑계할 수 없을 것⁹⁷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동시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원하시면서(volens) 인간이 넘어지는 것 자체를 겪게하셨고, 저 죄는 항상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⁹⁸고 하였다. 즉,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악행들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을지라도 의로운 원인으로부터 주님께 의해 나오고(procedant), 비록 만사의 제일원인이 그의 의지일지라도, 그가 범죄들의 원작자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⁹⁹ 이런 입장에 따라 칼빈은 죄책의 악(malum culpaе)이 아니라, 형벌의 악(malum

interitum. nulla vero imposita fuit Deo necessitas quin mediam illi voluntatem daret, atque etiam caducam, ut ex illius lapsu gloriae suae materiam eliceret.” 한편 칼빈은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315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시면서 최상의 그리고 최고로 바른 목적(finem optimum et rectissimum)을 가졌는데, 그것으로부터 죄의 이름은 혐오하신다(abhorret peccati nomen)고 표현하였다.

96)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15~316: “Si unquam divini spiritus instinctu factum esse dixissem, ut se a Deo primus homo alienaret: ac non potius ubique contenderem, diaboli instigatione et proprio cordis sui motu impulsus, merito forte insultaret mihi Pighius: nunc autem quum a Deo propinquam actionis causam removens, simul omnem ab eo culpam removeam, ut solus homo reatum subeat.”

97) Ibid., 341: “Causetur Adam, ut volet, se datae sibi a Deo uxoris illecebris fuisse deceptum: intus tamen mortiferum infidelitatis virus, intus pessima consultrix ambitio, intus diabolicum audaciae flabellum reperietur. Multo igitur minus excusabiles erunt, qui ex profundis Dei adytis malorum suorum causam, quae se ex vitioso eorum corde profert, eruere tentabunt.”

98) Ibid., 315: “Quod autem Deus sciens ac volens hominem ipsum cadere passus est: …Hoc quidem absque controversia tenendum : semper illi peccatum odio fuisse.”

99) Ibid., 363: “Ergo quum iusta de causa, licet nobis ignota, a Domino procedant quae scelerate ab hominibus maleficia perpetrantur, etiamsi rerum omnium prima causa sit eius voluntas, peccati tamen eum esse autorem nego.”

poenae)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다(proficisci)¹⁰⁰고 기묘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사의 원작자로서 자신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조성하신다고 증거 되고있고(사45:7),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어떤 악도 생기지 않는다(암3:6)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신의 심판단을 집행하시면서 원하시면서 하시는가 마지 못해하시는가를 칼빈은 반문¹⁰¹)하고 있다.

(a) 행하는 것(agere)과 허용하는 것(permittere)

칼빈은 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사이의 구별이 생겼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탄과 인간을 통해서 행하고(agens)¹⁰² 계시면서, 어떻게 저들의 범죄로부터 전혀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죄책을 면할 수 있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ministros)을 의롭게 정죄하실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행하는 것(agere)과 허용하는 것(permittere) 사이에 구별이 생겼다¹⁰³)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을 구별하는 원인들의 다양성(causarum diversitas)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그런 허망한 구별을 배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백성

100) Ibid., 361: "malum poenae, non culpae a Deo proficisci, modo dextre intelligatur."

101) Institutio 1559 I, xviii, 3: "Testatur se creare lucem et tenebras, formare bonum et malum(Ies. 45, 7); nihil mali accidere quod ipse non fecerit(AMOS 3, 6). Dicant obsecro, volensne an nolens iudicia sua exercent?"

102) 김영규는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20쪽에서 "악과 관련해서 개혁주의자들은 그 작정하는 의지를 둘로 즉 유효케하는 의지(voluntas efficiens)와 허용하는 의지(voluntas permittens)로 나누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적 의지의 적극적인 행위를 표현하였으나, 칼빈이 어거스틴에 따라 '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였던 것과 약간의 다른 성격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바빙크의 역사적 이해처럼 썩빙글리 이해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허용적 의지아래 "순수한 부정도 아니요, 무지, 무능, 소홀로 인한 의지의 단순한 주저함(mera cessatio voluntatis)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유효한 결의(volitio efficax)이 되, 효력있는 것(efficiens)이거나 산출하는 것(produccens)이 아니라, 도덕적 본성에 따라 죄를 따라야 하는 결손적인 것(deficiens)"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그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103) Institutio 1559 I, xviii, 1.

들에게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선동하셔서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고(삼하 24:1), 다른 곳에서는 사탄을 같은 일의 선동의 원작자로 만든다(대상21:1)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디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세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채¹⁰⁴)라고 하였다. 특히, 유기자들은 사탄의 기구들¹⁰⁵)인데, 이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악한 욕망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효력적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¹⁰⁶)이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탄의 중재활동을 통해서 유기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추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한에서 자기 몫을 스스로 행하고 성취하는 것¹⁰⁷)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광폭하게 거칠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의 완고한 악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완고함 그 자체에 몰아 세우지 않는 것처럼 강박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¹⁰⁸)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사울은 자신의 범죄에 의해 행해져서

104)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58: "Modum quoque exprimit scriptura, quum uno in loco recitat Deum populo iratum cor Davidis incitasse, ut populum numeraret(2 Sam. 24, 1): in altero Satanam facit eiusdem instigationis autorem(1 Chrom. 21, 1). Unde intelligimus, Satanam irae Dei flabellum esse, ut corda hominum quocunque voluerit Deus impellat."; Institutio 1559 I, xiv, 18: "Scimus enim iusta Dei vindicta satanae permissum fuisse ad tempus Davidem, ut eius impulsu populum numeraret(2 Sam. 24, 1)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복수에 의해서 사탄에게 잠시동안 다윗을 넘겨졌었고, 사탄의 추진에 의해서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다(삼하24:1)는 것을 안다"

105) Ibid., 362: "Quomodo nunc a culpa eximetur Deus, cuius Satan cum suis organis reus erit?"; Institutio 1559 I, xvi, 14: "Quemadmodum enim ecclesia et snactorum societas Christum habet caput, ita impiorum factio, et ipsa impietas cum suo principe nobis depingitur, qui summum imperium illic obtineat."; Institutio 1559 I, xvi, 18: "Et merito; sunt enim impii omnes vasa irae. Ideo cui potius quam divinae ultionis ministro subiicerentur?"

106) Ibid., 358: "Nec vero ideo tantum irae Dei minister, quod animos ad malas cupiditates sollicitet: sed quia efficaciter trahat."

107) Institutio 1559 I, xviii, 2: "Fateor quidem interposita satanae opera saepe Deum agere in reprobis; sed ut eius impulsu satan ipse suas partes agat et proficiat quatenus datum est."

108)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57~358: "quando neque extrinseco motu impelli fingimus hominum animos, ut violenter ferantur,

심중에 품어진 광기를 자발적인 충동으로부터 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닦아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가하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원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¹⁰⁹⁾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간들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행한 악들인 한,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단순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행하고 계시는 원작자로부터임을 선언하고있다¹¹⁰⁾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심판자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사역자들에 의한 수행을 명령(mandare)도 아니하고, 다만 허용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¹¹¹⁾ 하였다.

(b) 목적(finis)과 방식(modus)의 차이

칼빈은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지움이 없이 어떻게(quomodo) 같은 일(idem opus&idem facinus)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각각 원작자로 돌릴 수 있는가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욕의 예를 들어 행하는 목적(finis)과 방식(modus)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즉, 주님의 뜻(Domini consilium)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는 것이었고, 사탄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 넣으려고 전력을 다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칼빈은 의도들(consiliis)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부터 이미 행동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고 하

neque in Deum transferimus indurationis causam, ac si non sponte propriaque malitia duri et immites, se ipsos ad pervicaciam acuerent: sed quod perverse homines faciunt, non nisi Deo ordinante fieri, scriptura docet."

109) Ibid., 358: "Scelere quidem suo agitur Saulus, ut furorem intus conceptum voluntario motu egerat. Eum nihilominus impellit Satan: neque id Deo per otium speculante, sed ita volente."

110) Ibid., 359: "Equidem quatenus mala sunt, quae malo animo perpetrant homines, ut statim plenius exponam, Deo minime placere fateor: sed quod otiosum ea permittere fingunt, quae scriptura non tantum eo volente sed autore fieri pronunciat, nimis frivolum est effugium."

111) Institutio 1559 I, xviii, 1: "quia ridiculum esset, iudicem tantum permittere, non etiam discernere quid fieri velit, et mandare exsequutionem ministris."

였다. 또한 방식도 못지 않게 다른데, 주께서는 자기의 종이 사탄에 의해 괴로움을 받고 있을 것을 허락하시며, 갈대아 사람들을 사역자들로 채용하여 그들을 사탄에 의해서 추진되어지고 있도록 넘겨주었으며, 사탄은 독을 묻힌 그의 창들로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그 악행이 수행되어지고 있도록 자극하였으며, 그들은 격렬하게 불의에로 돌진하여 온 지체를 죄로 물들이며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탄은 유기자들 속에서 악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방식¹¹²⁾으로 행하시는데, 그의 진노의 기구인 사탄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의로운 심판들이 수행되어 지고있는 것으로 이리 저리 친히 추진하시는 것¹¹³⁾이라고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은 실로 그 목적과 방법에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이 시련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셨고 사탄과 사악한 강도들은 다만 이 시련의 사역자들이었다¹¹⁴⁾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적과 방법의 차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게 하며, 사탄과 사람의 추함¹¹⁵⁾은 그 사악함을 폭로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탱되어지며 움직여지는 효력을 얻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활동은 생략하고, 하나 하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저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한

112) 칼빈은 *Ibid.*, I, xvii, 5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의 무한한 위대성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악한 기구들에 의해서 선이 행해지고 있을 것에도 사용하는지 너무 잘 아신다(*pro immensa suae sapientiae magnitudine, ad bene agendum malis instrumentis uti bene probeque novit.*)"고 언급하였다. 또한, *Ibid.*, I, xviii, 1에서는 "욥기 1장으로부터 우리는 사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명령을 받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다(*Ex primo capite Iob scimus satanam se coram Deo sistere ad excipienda iussa, non minus quam angelos, qui sponte obediunt.*)"

113) *Institutio* 1559 II, iv, 2.

114) *Ibid.*, I, xviii, 1: "*diverso quidem id modo et fine, sed tamen ne quid aggredi possit, nisi volente Deo...colligimus, eius probationis cuius satan et scelesti latrones ministri fuerunt, Deum fuisse autorem*"

115) 칼빈은 행악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Ibid.*, I, xvii, 5: "그들은 조금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는데,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비난되기 때문(*propria conscientia redarguuntur*)이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는데, 그들은 전체 악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totum in se malum deprehendunt*)이다...악한 인간 안에 악의 원인과 죄책이 있다(*in homine malo subsideat mali materia et culpa.*)"

다¹¹⁶)고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터놓고 모호하지 않게 가르쳐지는 것들뿐¹¹⁷)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을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까다로움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고, 게다가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알고 있음으로써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아셨다면, 자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절대로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 공표 된다고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실로 예외 없이 성경들 안에서 가르쳐진 것은 무엇이든지(*quidem sine exceptione, quidquid in scripturis traditum est*) 배우려는 온순함으로 껴안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¹¹⁸)고 강조하였다.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인류의 근원적 심판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피기우스는 불경건한 자들이 아담 안에서 정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만약 원시적 죄책(*originalis culpa*)¹¹⁹)이 인간들이 멸망받는데 충분하지 않고,

116) *Institutio* 1559 II, iv, 2. 칼빈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Quomodo operetur Deus in cordibus hominum*)”라는 제하(題下)에서 다루고 있다.

117) *Ibid.*, I, xviii, 3: “*Quando autem hactenus recitavi solum quae aperte et non ambigue in scriptura traduntur,...*”

118) *Ibid.*, I, xviii, 4.

119) 칼빈은 원죄에 대하여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진염은 육체나 영혼의 본질 안에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소유하게 하고 동시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되었기 때문이다(*Institutio* 1559 II, I, 7: *Neque enim in substantia carnis aut animae causam habet contagio; sed quia a Deo ita fuit ordinatum, ut, quae primo homini dona contulerat, ille tam sibi quam suis haberet simul ac perderet.*)”; “아담으로부터 형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주입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오염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 ...로마서 5장12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거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는 것은 원죄에 연루되고 그 오염들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조차 모태로부터 자신들의 파멸을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arcanum Dei iudicium)이 확실한 자리를 가지지 않는다면,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행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생명을 박탈당한 어린 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묻고 있다. 예컨대, 소돔과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아들은 태어나고 죽게 될 그 보존에 있어서는 똑같았고,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분리해서 일부는 그의 오른편에 나머지는 그의 왼편에 세우실 것인가?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거기로부터 곧장 더 좋은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창조되고, 지옥의 앞마당인 소돔은 나머지의 출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누가 이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판단(hic admirabile Dei iudicium)을 숭양하지 않겠는가¹²⁰⁾ 칼빈

들과 함께 지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점에 의해 정죄되는 것이다. 물론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의 열매들을 아직 생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심겨진 씨앗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그들의 전(全) 본성은 죄의 모판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혐오스럽고 증오할만한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로 보건데,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로 여겨지는데, 이는 죄책이 없이 정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Institutio 1559 II, I, 8: Ab illo tamen non sola in nos poena grassata est, sed instillata ab ipso lues in nobis residet, cui iure poena debetur. ...Et apostolus ipse disertissime testatur (Rom. 5, 12), ideo mortem in omnes pervagatam quod omnes peccarint, id est, involuti sint originali peccato et eius maculis inquinati. Atque ideo infantes quoque ipsi, dum suam secum damnationem a matris utero afferunt, non alieno, sed suo ipsorum vitio sunt obstricti. Nam tametsi suae iniquitatis fructus nondum protulerint, habent tamen in se inclusum semen, imo tota eorum natura quoddam est peccati semen; ideo non odiosa et abominabilis Deo esse non potest. Unde sequitur, proprie coram Deo censeri peccatum quia non esset reatus absque culpa.)"

12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09: "Si neque originalis culpa ad homines damnandos Pighio sufficit, nec quidquam loci habet arcanum Dei iudicium: quid pueris infantibus faciet, qui prius quam ullum tale specimen per aetatem edere possent, ex hac vita erepti sunt? Quum eadem nascendi et moriendi conditio fuerit parvulis qui Sodomae et Ierosolymae mortui sunt, nec quidquam in eorum operibus dispar: cur aliis ad dextram suam stantibus, alios ad sinistram Christus extremo die segregabit? Quis hic admirabile Dei iudicium non adoret, quo factum est ut alii Ierosolymae nascerentur, unde ad meliorem vitam mox transirent, alios Sodoma, inferorum atrium, nascentes exciperet?" 칼빈과 같은 입장에서 베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T. Beza, A briefe declaration of the chiefe poyntes of christian religion, third chapter, n.d.: "...for as much as betwixte the secret and incomprehensible will of God, and that corruption of mans nature, which is the very first occasion of the reprobates damnation, the will of the first man is a meane, which being created good, hath willingly corrupted itself, and thereby opened the door to the just judgement of God, to condemne all those,

은 되묻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근원적인 심판에서부터 이미 택자와 유기자를 향한 구별된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은 어거스틴을 따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물을 매우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선으로부터 악이 나올 것을 예지하셨고, 악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그의 전능한 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또한 아셨다. 이렇게 그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생명을 걱정하셔서, 그 안에서 자유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이시고, 다음에는 그의 은혜의 혜택과 의로운 심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신다”¹²¹⁾

to whom it doth not please hym to shew mercy.”; T. Beza, *Treasure of Truth, The Second Chapter, The fifth Aphorisme* (London, 1581): “As it is written, I have loved Jacob, but hated Esau. Where he doth not only say, that Easu before he had doone any good, was ordained unto hatred(for after this sort hee might seeme to touche none but actuall sinnes(as they say) or unbeliefe, but saith plainly, before hee was borne. By which wordes he excludeth or shutteth out fro the cause of hatred, original sinne also, whatsoever in the person of Esau might bee reckoned from his very birth. Therefore wheras a little after he bringeth in the reprobates or ofcastes prating heere against, hee doth not attribute unto them such like kind of speach, why doth not God beare the same hatred towards others also, for asmuch as they are borne in the same corruption, that we are? I say, there is no such thing read in wordes of the Apostle, but he setteth this their exception against it: who shall withstande his will? for heereupon mans reason gathereth, that they are unworthily condemned. Neither doth Paul answer, that God did so will it, because hee did foresee that they woulde bee corrutped, and so that the cause of the decree was grounded upon their wickednesse(which defence was plaine and readie, if it had been true) but whilest hee confesseth that it so pleased God, and that it was not in their will to change it, doubtlesse he abateth the pride mans of wisdome, that it may reverently esteeme of the secretes of God, as is most meete: but the elect or chosen he exhortheth to beholde the grace of God, the which he setteth foorth with such comparison. So therefore must other testimonies he expounded, in the which we go up unto the highest will of God, which is the onely rule of justice.”

121) *Ibid.*, 269: “Saluberrime confitemur, quod rectissime credimus, Deum Dominumque rerum omnium, qui creavit omnia bona valde, et mala ex bonis exoritura praescivit, et scivit magis ad suam omnipotentissimam bonitatem pertinere, etiam de malis bene facere, quam mala esse non sinere: sic ordinasse angelorum et hominum vitam, ut in ea prius ostenderet quid posset liberum arbitrium: deinde, quid posset gratiae suae beneficium, iustitiaeque iudicium.”

칼빈은 계속해서 어거스틴의 증거대로 “이것들이 그의 모든 의지에서 조심히 사려된 여호와와 큰 일들(magna opera Domini)이니, 그렇게 지혜롭게 엄선되어서, 천사와 인간 피조물이 범죄 하였을 때,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한 것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원치 않았던 것을 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원했던 것을 성취한 피조물의 같은 의지를 통하여, 그가 공의롭게 별개로 미리 정했던 자들의 멸망과 그가 긍휼로 은혜에로 미리 정했던 자들의 구원에 악 조차도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신다. 그들 자신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을 그들은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¹²²⁾에 관한 한, 그들은 전혀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그들이 행한 것 바로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행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의 모든 의지에서 최고로 위대한 여호와와 큰 일들이니, 불가사의하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miro et ineffabili modo)으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진 일 조차도, 그의 의지가 없으면 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해질 수 없기

122) 칼빈은 어거스틴을 따라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269와 366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실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가 원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을 그가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하며 불변하고 최고의 효력이 있는가!(quam certa et immutabilis et efficacissima sit voluntas Dei, quam multa possit et non velit, nihil autem velit quod non possit.)”; 또한, 어거스틴을 따라 Institutio 1559 III, xxiv, 13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자들의 의지를 선으로 바꿀 수 있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는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그는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는 원하지 않을 것인가는 그 자체에 달려 있다(Posset, inquit ille, Deus malorum voluntatem in bonum convertere, quia omnipotens est; posset plane: cur ergo non facit? quia noluit; cur noluerit, penes ipsum est.)”; 바빙크도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 유명론과 범신론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어거스틴과 칼빈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244~245: “If God could go astray, if he could sin, etc., this, indeed, would be an indication of impotence. ... Calvin, however, did not deny the fact that God can do more than he actually does, but he assailed the notion of an ‘absolute power’ apart from God’s being, a power that would enable him to effect all kinds of contradictions. ... So also God’s omnipotence infinitely transcends the unlimited power which is revealed in the universe.”; 한편, 칼빈은 만약 어떤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없는데, 이는 그것이 보존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조롱한다면, 그가 악을 참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힘에 의한 강제를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한한 선으로부터(immensa eius bonitate fieri ne male agere possit, non violenta impulsione)라고 대답하였다(Institutio 1559 II, iii, 5).

때문이다. 그 허락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면서 허락하는 것이다”¹²³⁾라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칼빈은 유기자들에게 제한되고 신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보복의 심판(iudicium vindictae)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축복인 징계의 심판(iudicium castigationis)을 구별하였다. 전자는 유기자들이 현세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서 일종의 지옥의 통로로 묘사해 보이고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멀리 바라보게 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음부를 위한 전주곡들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그렇게 해서 생활을 고치거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정한 교육을 촉진시키고 이 사실에서 진노보다도 자비를 더욱 분명히 증거하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벌하시는 목적도 오직 교회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시키려는데 있다고 본다. 이런 목적의 경우에 그는 인류의 보편적인 저주에 대해서도 적용¹²⁴⁾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피기우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가두셨다(롬11:32, 갈3:33)는 말씀을 마치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논하려 하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순전한 은혜를 기리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¹²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3)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69~270: "Haec sunt magna opera Domini, exquisita in omnes voluntates eius: et tam sapienter exquisita, ut quum angelica et humana creatura peccasset: id est, non quod ille, sed quod voluit ipsa fecisset, etiam per eandem creaturae voluntatem, qua factum est quod creator noluit, impletet ipse quod voluit, bene utens et malis tanquam summe bonus ad eorum damnationem quos iuste praedestinavit ad poenam, et ad eorum salutem, quos benigne praedestinavit ad gratiam. Quantum enim ad ipsos pertinet, quod Deus noluit, fecerunt. Quantum vero ad omnipotentiam Dei, nullo modo id efficere valuerunt. Hoc quippe ipso quod contra Dei voluntatem fecerunt, de ipsis facta est Dei voluntas. Propterea namque magna opera Domini exquisita in omnes voluntates eius, ut miro et ineffabili modo non fiat praeter eius voluntatem, quod etiam contra eius fit voluntatem: quia non fieret, si non sineret: nec utique nolens sinit, sed volens."

124) Institutio 1559 III, iv, 31~35.

12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96: "Deum clausisse omnia sub peccato, ut omnium misereatur (Rom. 11, 32; Gal. 3, 22). Ac si Paulus illic de hominum numero disputaret: non autem potius simplicem gratiae commendationem poneret erga eos omnes qui ad salutem perveniunt." 사무엘 러더포드는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Part II Chap. V. 6. Reasons of the entrance of sin*에서 택

칼빈은 유기자들에 대하여 야곱이 선행들에 의하여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이 은총 안으로 맞아들여진 것같이 아직 어떤 악행에 의해서도 더럽혀진 일이 없이 미움을 받았다¹²⁶⁾고 하였다. 즉,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의 악의에 따라서 돌려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기자들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시되도록 세워졌다는 다른 해결책으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유기 되어지고 있는 것도 그의 의지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질 수 없다¹²⁷⁾고 결론 내린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유기자들의 멸망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어서 그 원인과 재료가 그들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¹²⁸⁾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자를 위한 첫 타락의 목적이 다루어지고 있다.

126) 트위스는 *How God hated Esau*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W. Twiss, *A Treatise of Mr. Cottons, Clearing certaine doubts concerning predestination* (London, 1646), 204: "Now I would easily grant, that before Esau had done good or evil, God so hated him, as that hee did not communicate to him that fellowship with Christ, which by Gods election and donation the members of the body have with him their head in Gods account, even before the world was. Neither did God did God vouchsafe that plentifull communion of his free grace unto him, as might in time by a reall actuall power draw him to Christ and to live by him: Yea God was pleased to set him in a state further remote, and separate from him then his elect brother: Even in the estate of servant to the elect: and in stead of communicating free grace, he purposed to deale with him rather according to his works, by a covenant of Justice; For both these are implied in Gods putting of Esau into state of servant. First, the denyall of such grace and fatherly love to him as is reserved for children. Secondly, the (not) refusing of him to just dealing, such as is due to servants according to their works."

127) *Institutio* 1559 III, xxii, 11: "Ut enim Iacob, nihildum bonis operibus promeritus, assumitur in gratiam, sic Esau, nullo adhuc scelere inguinatus, odio habetur. ...Deum rependisse Esau secundum suam malitiam; sed diversa solutione contentus est, quod in hunc finem excitentur reprobi, ut Dei gloria per illos illustretur. ...Ergo si non possumus rationem assignare, cur suos misericordia dignetur, nisi quoniam ita illi placet, neque etiam in aliis reprobando aliud habebimus quam eius voluntatem."

128) *Ibid.*, III, xxiii, 8: "Ad hoc, sic ex Dei praedestinatione pendet eorum perditio, ut causa et materia in ipsis reperiatur."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인류의 부패한 본성에서 멸망의 명백한 이유가 보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감추어져 있고 전적으로 불가해한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복종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의 많은 비밀들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것들의 무지는 유식한 것이며 지식욕은 일종의 정신이상이라¹²⁹⁾고 칼빈은 표현하였다.

c.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유기자의 맹목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교만과 완고와 다른 죄악들을 맹목과 다른 방법들로서 벌하신다¹³⁰⁾고 하였다. 예컨대, 바로가 강박케 되었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기 합당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전에(prius)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체에로 세워진 것을 모세가 동시에 증거한다(출10:20)고 하였다. 바울도 그가 유기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롬9:17)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유대인들이 이해의 빛이 박탈되어 무서운 어둠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신적 은혜의 악한 경멸에 대한 의로운 형벌들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맹목이 모든 유기자들에게 작정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칼빈은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대로 만약 택자가 아닌 나머지 모두가 강박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반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져 있고 새로운 맹목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은 이미 처음부터 맹목에 바

129) Ibid, III, xxiii, 8: "Quare in corrupta potius humani generis natura evidentem damnationis causam, quae nobis propinquior est, contemplerur, quam absconditam ac penitus incomprehensibilem inquiramus in Dei praedestinatione. Neque immensae Dei sapientiae submittere hucusque ingenium pigeat, ut in multis eius arcanis succumbat. Eorum enim quae scire nec datur, nec fas est, docta est ignorantia, scientiae appetentia, insaniae species."

130) 같은 맥락에서 트위스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 Twiss, *Treatise of Mr. Cottons, Clearing certaine doubts concerning predestination*, 252: "but in my judgment it is a strange liberty of speech, to say, that God doth punish a man for his covetousness, by not restraining it, but suffering it to have his course."

처진(iam ab initio caecitati fuisse devotos) 자들¹³¹⁾이라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늘과 땅의 외관으로부터 인식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는 유기자들이 모두 버려진 감정으로 버려지기에 마땅하다(롬1:28)¹³²⁾고 하였다.

4.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이미 그들을 아들들의 자리로 채택하셨을 지라도,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엄청난 복의 소유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복음의 선포도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유기자들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선택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조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보다 내적인 부르심이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부르심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선택이 주관함으로 어떤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electionis testimonium)로 여기고, 영광은 선택의 완성(complementum)이라고 하였다.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fidei mater)이므로 선택을 거꾸로 믿음에 의존시켜서 마치 믿음에 의해서 확인¹³³⁾될 때까지 선택이 의심스럽고 효력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prope) 있는 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풍부하게 물이 흘러내려서 마셔지고 있을 관(canal)에 의해서 샘(scaturigo)이 자체의 영예를 보존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구별하였다.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manifestandae symbolum)이다. 기록도 선택에서 기원했다(ab electione habuisse exordium).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는 선택의 열매(electionis

131)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34.; Institutio 1559 III, xxiv, 14.

132) Ibid., 342: "Coniici merentur in sensum reprobum (Rom. 1, 28), quicumque Deum ex coeli terraeque aspectu cognitum non glorificarunt, ut decebat."

133) Ibid., III, xxiv, 3: "Equidem confirmari, quoad nos, minime obscurum est."

fructus)¹³⁴)이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슨 덕이든 선택의 결과(electionis effectum)이다.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저 은밀한 채택으로부터 내려온다(ex recondita illa adoptione descendere). 견인의 선물(donum perseverantiae)도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한다.¹³⁵⁾

비록 칼빈의 경우, 구원의 서정에서의 부르심과 동일한 선택의 개념이 있었음이 확인될지라도,¹³⁶⁾ 언제든지 그런 소명은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선행들(bona opera)은 신자들이 선택을 인식하는 부르심의 표징들(vocationis signa)¹³⁷⁾이라고 표현하였다. 선하게 원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 근원은 믿음으로부터이므로 믿음의 근원 자체가 어디로부터인지 보여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과 믿음¹³⁸⁾이 하나님의 순전히 거저주시는 선물(gratuitum Dei donum)¹³⁹⁾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

134) 칼빈은 구원의 서정에서 택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요성과 힘에 대한 어거스틴의 말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Ibid., II, iii, 13: "후에 따르는 어떤 선행들이든지 은총의 열매이며 결과이다. 그리고 은총은 은총이 만든 의지 외에 은총에 순종하고 있는 다른 의지를 갖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행은 오직 은총이 행한 일이다(ut quidquid deinde sequitur boni operis, fructus sit ipsius ac effectus, nec aliam habeat sibi obsequentem voluntatem nisi quam fecit...omne bonum in nobis opus non nisi gratiam facere.)."

135) Institutio 1559 III, xxiv, 1~6.

136)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그러하다: Institutio 1559 III, iiiv, 14: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명예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리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조금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이라고 가르친다(...ut Dei vocationi fidei suae laudem adscriberent qui evangelium amplexi fuerant. Sicuti etiam paulo post docet a Deo electos esse.)."

137) Ibid., III, xiv, 20.

138) 칼빈은 칭의에 대해 논하면서 믿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Ibid., III, xviii, 8: "우리가 믿음이 의롭게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는 기구이기 때문이다(Fidem iustificare dicimus, non quia iustitiam nobis sua dignitate mereatur; sed quia instrumentum sit, quo Christi iustitiam gratis obtinemus.)."

139) Ibid., II, iii, 8: "Nam quum bene volendi et agendi principium sit ex fide, videndum est unde sit ipsa fides. Quum vero gratuitum esse Dei donum clamet tota scriptura, sequitur ex mera gratia esse ubi velle bonum incipimus, qui ad malum toto animo sumus naturliter propensi." & Ibid., III, xvii, 10.

이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상속을 위해 자신의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자신의 일반적 경륜에 따른 선행들을 통해서 영생의 소유¹⁴⁰⁾ 안으로 인도하신다. 경륜의 질서에 있어서 앞서는 것이 뒤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그가 종종 행위들로부터 영생을 이끌어 낸다. 그것은 행위들에 둘러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롬8:30)이다. 즉, 이렇게 그가 앞에 온 은혜를 뒤따르고 있는 은혜의 원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에 둘러지고 있어야만 할 때마다, 그는 행위들로 피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공흠에만 가두도록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것들로부터 뒤따르는 것들이 첨가되어지는 원인으로 삼으셔서 은혜들에 의해서 은혜들을 쌓아올려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종들이 부요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너그러움(liberalitas)에 따라 값없이 주신 선택이 매일의 선물들과 성령의 선물들의 샘이고 시작(fons et initium)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제일 원인에 종속시켜 묶어놓음으로서 나중에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들이 선택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¹⁴¹⁾고 결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유일한 근거는 선택뿐이다¹⁴²⁾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유기자들이 택자들과 함께 부르심의 유

140)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다. Ibid., III, xviii, 3: “영생이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불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복된 불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교통으로 단순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복의 소유나 복의 즐기는 것이다(...ubi vita aeterna merces operum vocatur, non simpliciter pro illa communicatione accipi, quam habemus cum Deo ad beatam immortalitatem, quum nos paterna benevolentia in Christo amplectitur; sed pro beatitudinis possessione vel fruitione,...”)

141) Ibid., III, xiv, 21: “...atque ita liberalitatem suam prosequitur, ut tamen gratuitam electionem, quae fons et initium est, respicere nos semper velit. Quanquam enim quae nobis quotidie confert dona, quatenus ex illo fonte prodeunt, amat, nostrum tamen est, gratuitam illam acceptationem tenere, quae sola fulcire animas nostras potest; quae vero spiritus sui dona deinde largitur, ita subnectere primae causae, ut ei nihil derogent.”

142) Ibid., III, xxi, 1: “Nec vero alibi solidae fiducia fultura,...”

사한 표징들(vocationis similia signa)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신자들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구하라고 명령받은 저 확고한 선택의 확신이 저들에게 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¹⁴³⁾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예정과 예지를 모두 하나님 안에 둘지라도,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이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¹⁴⁴⁾ 요컨대 문제는 예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고 계실 것을 보신 것인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스스로 있을 어떤 것을 보신 것인지에 있다¹⁴⁵⁾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의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¹⁴⁶⁾ 즉 대상을 대상화하는 의식의 지향성 자체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다는 것¹⁴⁷⁾을 사려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무슨 일이

143) Ibid., III, xxiv, 7: "Nec infitior quin habeant vocationis similia cum electis signa; sed illud certum electionis stabilimentum, quod fideles a verbo evangelii petere iubeo, illis minime concedo."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68: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게 실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받아들여진 은혜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들이 있다(Sunt enim filii Dei, qui nondum sunt nobis, et iam sunt Deo: sunt rursus qui propter susceptam vel temporaliter gratiam dicuntur a nobis, nec tamen sunt Deo.)"

144) Institutio 1559 III, xxi, 5: "Ac nos quidem utramque in Deo statuimus; sed praepostere dicimus alteram alteri subiici."

14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72: "Hoc modo in quaestione versatur, praevideatne quid in ipsis facturus sit, an quales a se ipsis sint futuri."

146) 칼빈은 외적인 일들의 성공으로부터 인간 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런 능력은 인간 안에(intra hominem)있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의지의 자유란 판단의 선택(iudicii electionem)과 의지의 경향(voluntatis affectionem)이 자유로우나에 있다고 하였다(Institutio 1559 II, iv, 8).

147) 근원적으로 칼빈은 원죄로 인한 부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nstitutio 1559 II, I, 8: "이 부패는 결코 우리들 안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 즉, 육의 일들이다. 정확하게 마치 화염과 불꽃을 내뿜는 불붙은 용광로처럼, 혹은 샘으로부터 끝이 없이 물을 분출하는 것과 같다...악들의 모든 것이 그렇게 풍성하고 생산력이 있어서 그것은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인간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뻘뻘이 채워 있다. 즉, 인간 전체는 스스로부터는 육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Alterum deinde accedit, quod haec

의롭게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마음 안으로 들어 올 수 없다¹⁴⁸⁾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서는 선을 동경해서 결심하거나 선을 추구하며 노력할 수 없다¹⁴⁹⁾고 하였다. 즉, 의지가 죄의 노예에 차꼬가 채워져 고정되어 있다¹⁵⁰⁾는 것이 칼빈의 입장¹⁵¹⁾이다.

a.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지성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비록 마음이 타락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게 창

perversitas nunquam in nobis cessat, sed novos assidue fructus parit: ea scilicet, quae ante descripsimus, opera carnis; non secus atque incensa fornax flammam et scintillas efflat, aut scaturigo aquam sine fine egerit...sed malorum omnium adeo fertilis et ferax, ut otiosa esse non possit...quidquid in homine est, ab intellectu ad voluntatem, ab anima ad carnem usque, hac concupiscentia inquinatum refertumque esse; aut, ut brevius absolvatur, totum hominem non aliud ex se ipso esse quam concupiscentiam.)”

148) Institutio 1559 II, ii, 25: “sed hoc quoque adimit nobis, ne putemus in mentem venire nobis posse, quomodo rite quidpiam agendum sit.”

149) Ibid., II, iv, 1: “...ne ad bonum aut voto aspirare, aut studio contendere suapte natura queat,...”

150) Ibid., II, iii, 5: “Qua igitur peccati servitute vincta detinetur voluntas,...” 칼빈은 노예의지의 필연(necessitatem)과 강제(coactionem)을 구분했으며, 자원적(voluntario)에서 자유(libereum)로 비약하는 오류를 경계하였다.

151) 칼빈은 “사람은 지금 의지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로 넘겨졌다(Hominem aribitrii libertate nunc esse spoliatum et miserae servituti addictum)”는 Institutio 1559 II, ii장과 “사람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생산하는 것은 멸망 받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Ex corrupta hominis natura nihil nisi damnabile prodire)” Institutio 1559 II, iii장의 제하(題下)에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보석들(satisfactione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nstitutio 1559 III, xiv, 13: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주받을 만한 것인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참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모든 의를 수집해서 한데 높이 쌓아 올리더라도 죄 하나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법에 의해서(uno delicto)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려졌고 동시에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있을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다.”

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singularem Dei gratiam*)임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generalem Dei gratiam*)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칼빈은 오히려 그러한 광경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돌려야만 한다는 경고를 받는데, 이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과 함께 우리의 전본성의 파멸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것도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specialis Dei gratia*)이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칼빈은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것은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므로 선천적인 선물들(*naturales dotes*)로 여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인간들 사이에서 재능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나 종종 최고의 재능과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둔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manu*)과 의지(*arbitrio*)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매순간마다 다스리시는 증거라고 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의 지성이 제학문에 대한 탐구와 연구에 탁월한 성과들이 있고 심지어는 현세의 영역을 넘어 위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도 맛보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지식과 참된 의의 본성,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비들(*puram Dei notitiam, verae iustitiae rationem, ac regni coelestis mysteria*)에 대하여는 소경이라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오직 성령께서 비취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미련하게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조명의 은혜가 강과 같이 저 영원한 의논의 샘으로부터 흘러내린다¹⁵²⁾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록 중생되어지고 진정한 경건 속에서 보통이 아니게 전진했을지라도, 부여받은 지식으로부터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허물로 잃어버렸었던 바른 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 것(시51:10)은 처음에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서 잠시 가져가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¹⁵³⁾이라고 칼빈

152)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71 "Audis illuminationis gratiam, quasi rivum esse ex fonte aeterni illius consilii fluentem,..."

153) *Institutio* 1559 II, ii, 12~25.

은 중요시하였다.

b.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택자의 의지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

칼빈은 구원에 관한 영적 생명이라기 보다 육적 생명을 지향하는 행위들에 관한 부분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의지가 그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반대로 마음과 영혼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해가 되었을 것을 피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것¹⁵⁴⁾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은총은 부패한 본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¹⁵⁵⁾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택자들 안에서가 아니면 실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원인은 사람들 밖에서 찾아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들이 택함 받은 그 같은 기쁘신 뜻으로부터 흘러 왔다는 것을 크게 중요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선의 근원은 다른 곳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다¹⁵⁶⁾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

154) Institutio 1559 II, iv, 6: "In actionibus autem quae nec iustae per se, nec vitiosae sunt, et ad corpoream magis quam spiritualem vitam spectant, quam libertatem obtineat homo, etsi supra attingimus, nondum tamen explicatum est. ...Ego, etsi eos qui nullas esse sibi ad iustitiam vires tenent, quod in primis ad salutem cognitu necessarium est tenere fateor, non tamen puto hanc quoque partem negligendam, ut noverimus specialis esse gratiae Domini, quoties in mentem venit eligere quod e re nostra est, quoties eo voluntas inclinatur, rursum quoties et mens et animus refugit quod alioqui erat nociturum." 칼빈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Institutio 1559 II, iv, 6: "누가 애굽 사람들의 의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그들이 가장 귀중한 기명들을 모두 빌려주고 있도록 하였는가(출11:3)? 그들 자신의 마음 자체에 따라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기보다 주께 굴복되었던 것이다. 온 교회가 시편(106:46)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셨을 때 잔인해진 민족들의 마음을 길들여 인자하게 만드신다"

155) Institutio 1559 II, iii, 3: "...inter illam naturae corruptionem esse nonnullum gratiae Dei locum, non quae illam purget, sed intus cohibeat."

156) Ibid., II, iii, 8: "Certe boni exordium non aliunde quam a solo Deo esse,

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영적 생명의 전과정(*totum spiritualis vitae cursum*)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기되는 신입협동과 공로사상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앞선다(*praevenit*)는 것과 그 시초와 지속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그 자체만으로 유효하다(*efficacem a se ipsa Dei gratiam*)고 강조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을 일하신다(*operari in nobis velle*)고 언급(빌2:13)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오직 은혜의 일(*quidquid boni est in voluntate, esse unius gratiae opus*)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전12:6)고 한 것은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탁월한 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 안에서 자랑할 티끌조차도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ne tantillum quidem restare homini in quo gloriatur, quia totum a Deo est*)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은총에 의해서 선행되어진다는 한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할지라도,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여호와와의 일이므로 수종하는 의지로서 선행하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의지가 없이는 은총은 일할 수 없으며, 은총이 없이는 의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은총이 바로 의지 자체에 일한다(*ipsam quoque voluntatem operetur gratia*)는 것을 부정하는 것¹⁵⁷⁾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우리 의지 안에 있는 선하고 바른 것들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회개를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creatio*)¹⁵⁸⁾라고 성경에서 증거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facili et certa ratione liquet. Neque enim voluntas reperietur ad bonum propensa nisi in electis. Atqui electionis causa extra homines quaerenda est; unde conficitur rectam voluntatem non esse homini a se ipso, sed ex eodem beneplacito, quo ante mundi creationem electi sumus, fluere."

157) *Ibid*, II, iii, 6~7.

158) 의지가 심히 타락되고 부패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집어 넣어야 할 하기 때문에 칼빈은 어거스틴을 따라 인간 안에서 새로운 의지가 창조되는 것(*nova in*

우리를 박탈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돌리는 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조되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로부터는 선한 것들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개조된 후에도 선한 것들인 한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¹⁵⁹⁾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그는 반항으로 끌리는 마음의 완고한 욕구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cogitur*) 시정 사이의 대조가 항상 주목되어야 한다¹⁶⁰⁾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선행의 처음 부분은 의지요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강한 노력인데, 두 부분 모두 하나님이 원작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우리가 의지나 노력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사칭(詐稱)한다면 주에게서 흠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더구나 선한 의지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욕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기 위해서는 성취에 이르기까지 노력의 항구성을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심정이 잘 정돈된 사람들도 만약 견인(牽引)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없어서 쉽게 사라지거나 새나간다고 표현하였다.

homine voluntas dicatur creari)이라고 표현하였다(*Institutio* 1559 II, v, 15.). 또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Ibid.*, II, v, 15: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의지가 이끌려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는 성령의 지배로 나타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지배되어지고 있을 때에는, 시정(是正)과 개혁(改革)과 갱신(更新)이 없이는 지배되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시초는 우리의 것이 말소되는 것이다. 동시에 자극하고, 행동하고, 추진하고, 지탱하고, 지속하는 것이 없이는 지배되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Hinc apparet, gratiam Dei... esse spiritus regulam ad dirigendam ac moderandam hominis voluntatem. Moderari non potest quin corrigat, quin reformet, quin renovet (unde dicimus principium regenerationis esse, ut quod nostrum est aboleatur) simul quin moveat, agat, impellat, ferat, teneat. Unde vere dicimus illius in solidum esse omnes quae inde emanant actiones.*]”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처지에 자신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중생 안에서 그의 택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주어지기를 적절하게 구했다고 하였다. 즉, 죽은 것 같은 자가 다시 창조되어 사탄의 소유권으로부터 성령의 도구(*spritus sancti organum*)가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다(*Ibid.*, II, iii,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열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tamen hoc quoque precandi desiderium a Deo esse*)고 강조하였다(*Ibid.*, II, ii, 27).

159) *Ibid.*, II, iii, 8.

160) *Ibid.*, II, iii, 9: “*Semper enim notanda est antithesis inter perversum cordis motum quo fertur ad contumaciam, et correctionem hanc qua in obsequium cogitur.*”

그러므로, 그는 “의지가 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의 열망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노력으로 분기되고 움직여지는 것은 주의 일이다. 두 번째로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지치지 않고 성취를 향해 줄곧 전진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일들 안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과 끝까지 계속 견인하는 것도 모두 주께서 하시는 일”¹⁶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나 반항이나를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의지를 효과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끄신다는 것은 배척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한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 자체를 효과적으로 만드신다(*ipsum velle in nobis efficere*)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지도하고 추진하고 다스려져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possessio*)처럼 지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스겔(*겔11:19&36:27*)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새 영을 주고 계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시는 목적은 단지 그들이 그의 계명들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간다(*re ipsa ambulat*)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외 없이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르쳐져야만 하지만, 그러나 천상의 은총이 불어주신 사람들이 마침내 구하기 시작하므로 이 찬양의 아주 적은 부분일지라도 그에게서 탈취되어서는 안된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중생되어져서 그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여지고 지배되는 것은 의심 할 것 없이 택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의 말들로부터(*요 6:44*)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효력적으로(*efficaciter*) 지배되기 때문에 불굴의 감정(*inflexibili affectu*)으로 따른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161) *Ibid.*, I, iii, 9: “Porro quoniam carnis nostrae pondere bona etiamnum voluntas obruitur, ne emergat, subiunxit, eluctandis eius pugnae difficultatibus, conatus constantiam ad effectum usque administrari...etiam qui probe affecti sunt, tot esse distractionibus obnoxios ut facile evanescant vel effluant, nisi ad constantiam firmentur...ut illius sit, quod recti amorem concipit voluntas, quod in eius studium inclinatur, quod ad eius sectandi conatum incitatur et movetur; deinde quod electio, studium, conatus non fatiscunt, sed ad effectum usque procedunt; postremo, quod homo in illis constanter pergit, et in finem usque perseverat.”

없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견인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항구성(*efficax ad perseverandum constantia*)이 확증(요일3:9)되므로, 소피스트들이 상상하는 중용적인 활동(*medium motum*)-누구든지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자유가 있다-을 분명하게 배제되는 것을 본다¹⁶²⁾고 하였다.

칼빈은 만약 극악한 오류가 힘을 얻고 있는 아니면, 견인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pro gratuito Dei dono*)로 아무 의심 없이 간주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처음 은총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데 대하여 뒤따르는 은총에 의하여 보상되어진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총이 우리 안에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고 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의 종들을 날마다 더욱 부요하게 하시며, 그의 은총의 새로운 선물들로 자신의 종들에게 쌓아 올리신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시고, 그가 더 큰 은총들로 계속하신 것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계되어야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마치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근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적이 되게 하는 것처럼, 처음의 은총의 바른 사용이 후에 따르는 은총들에 의해서 보상된다고 말해져서는 안된다. 보상(*remuneratio*)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기대되서는 안된다. 신자들이 선행하는 은혜들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이후에 더 큰 은혜들이 증가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신자들에 의해서 기대되어지고 있다¹⁶³⁾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 사용도 또한 주님으로부터고, 이 보상은 그의 무상의 자선(慈善)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어거스틴이 역사하고 있는 은총과 협동하고 있는 은총 사이의 구별을 사용하였을 지라도, 마치 각자 자신의 고유한 활동으로부터 상호 협동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배분된 것이 아니라, 은총이 점점 더하여짐(*gratiae multiplicatio*)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이 인간의 선한 의지에 선행하

162) *Ibid.*, II, iii, 1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276: “Ex istis nemo perit, quia omnes electi, et secundum propositum, non suum, sed Dei. Si quidem non tale modo illis perseverantiae donum confertur, ut postea declarat, quo possint si velint: sed quo non nisi perseverantes sint.”

163) 칼빈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바른 기대나 경건한 감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만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이 의지 자체도 선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지 자체가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¹⁶⁴⁾고 칼빈은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의지하는 것(velle)은 우리들에게 본성적으로 타고

164) Ibid., II, iii, 11. 칼빈은 같은 입장으로 어거스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Ibid., II, iii, 12: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지르시며(시59:11),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시23:6). 그가 원하고 있지 않는 자를 앞지르셔서 그가 원하고, 그가 원하고 있는 자를 뒤따르셔서 그가 헛되이 원하지 않도록 하신다 (Psal. 59, 11; 23, 6): misericordia eius praevenit me; et, misericordia eius subsequetur me: nolentem praevenit, ut velit, volentem subsequitur, ne frustra velit.”; Ibid., II, iii, 13: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확실히 그렇게 자극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원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이 억제되어지고 있기 위해서 힘이 온전하여져야만 하는데, 그들 자신의 의지가 그 자체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셔서 그들이 원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유혹들과 연약함 속에서 의지 자체가 굴복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계속 견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의 허약함에 구원이 제공되어서 신적 은혜가 중단 없이 계속 행하여져서, 결국 비록 약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antum quippe, inquit, spiritu sancto accenditur voluntas sanctorum; ut ideo possint quia sic volunt, ideo velint, quia Deus operatur ut sic velint. Nam si in tanta infirmitate, in qua tamen ad reprimendam elationem perfici virtutem docet, ipsis relinquatur voluntas sua, ut adiutorio Dei possint, si velint, nec Deus operetur in illis ut velint, inter tot tentationes infirmitate voluntas ipsa succumberet, ideoque perserverare non possent. Subventum est ergo infirmitati voluntatis humanae, ut gratia divina indeclinabiliter et inseparabiliter ageretur, ideoque quantumvis infirma non deficeret.).”; Ibid., II, iii, 14: “(동일한) 은총을 통하여 기쁨의 감정이 심어지면 지속으로 만들어지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쓰러진다. 선으로 전향되는 것과 전향되어 선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주의 거저 주시는 자비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의지가 선으로 전향되는 것과 전향된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지속할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모두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quod per eandem gratiam impresso delectationis affectu, ad perpetuitatem conformetur; quod insuperabili fortitudine roboretur; quod illa gubernante nunquam excidat, deserente protinus corruat; quod gratuita Domini misericordia et ad bonum convertatur et conversa in ipso perseveret; quod voluntatis humanae directio in bonum, et post directionem constantia, ex sola Dei voluntate pendeat, non ullo suo merito. … quod nec ad Deum converti, nec in Deo persistere, nisi per gratiam, possit; a gratia valeat quidquid valet.).”

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찬양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고 부적절하지 않게 말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우리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둘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으로 이끌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요, 그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그 노력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¹⁶⁵⁾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의 이런 언급은 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여 은총을 부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인간을 향한 이 루 다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찬양하려는 것¹⁶⁶⁾이었다.

C. 인과론의 오해에 대한 칼빈의 답변들

1.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인간의 숙고와 대비는 충돌하는가?

칼빈은 솔로몬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숙고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결합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님 없이 자신이 기뻐하는 어떤 일이든지 대담하게 계획하는 자들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잠16:9)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들에 의해서 그의 의지 아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비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들을 정돈하는 것이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자신의 삶의 경계들을 정하셨고,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그것의 돌봄을 요구하셨고, 그가 그것이 보존되어지고 있을 규칙들과 도움들을 제공하셨고, 그가 또한 위험들을 미리 보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불의의 습격들이 덮

165) Ibid., II, v, 15: “quia tamen nobis naturaliter ingenitum est velle, non abs re ea agere dicimur quorum laudem sibi iure Deus vindicat; primum, quia nostrum est eius benignitate quicquid operatur in nobis, modo non a nobis esse intelligamus; deinde quia nostra est mens, nostra voluntas, nostrum studium, quae ab eo in bonum diriguntur.”

166) Ibid., III, xv, 4.

치고 있지 않도록, 경계들과 대책들을 제공하셨다. 이제 우리들의 직무는 명백한 것이다. 당연히, 만약 주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되어지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라. 만약 도움들을 제공하시면, 그것들을 사용하라. 만약 그가 위험들을 미리 보여주시면,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라. 만약 그가 대책들을 공급하시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어떤 이는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면 경계 없이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계되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지만, 반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그것이 운명적인 것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경계하기를 부과(iniungit)하시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숙고되어지고 있고 경계되어지고 있는 기능들이 불어넣어 지고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보존 안에서 그의 섭리에 종속되어(subserviant) 있다. 그런 방식에 따라 반대로 태만과 어리석음으로 그가 저들에게 부과하신(iniunxit) 재난들(mala)을 그들은 스스로 불러들인다. 신중한 사람이 자신을 돌보고 임박한 재난들로부터도 자신을 구해내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숙고 없는 무모함으로 망하는데, 만약 우매도 신중도 어느 경우이든 신적 분배의 기구들(divinae dispensationis instrumenta)이 아니라면 실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감추기를 원하셔서 일종의 의심스러운 것들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공급된 대처들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이 극복되어지도록 하시거나, 그들이 모든 근심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늘 벗겨져서(nuda)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신 수단들로 말하자면 옷 입히신다.”¹⁶⁷⁾고 표현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지복(至福)을 산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가 하나님의 분배에 의해서 발생하며,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확신되어 지므로, 사건들의 근본 원인(praecipuum rerum causam)으로서 그에게 눈들을 항상 돌릴 것이라고 중요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종속적인 원인들(causas inferiores)을 사려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특별섭리(singularis Dei providentia)가 그가 보호되고 있도록 깨어있어서(excubare) 그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발생해서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167) Ibid., I, xvii, 4.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가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돌봄을 특별한 증표들로서 그가 나타내신다는 것은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칼빈은 변명되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은 종속적인 원인들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을 것이므로, 받은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을 근본 원작자(*praecipuum autorem*)로서 경외하고 찬송할 것이로되, 사람들은 그의 사역자들로 존경할 것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자신의 백성들의 선과 구원 안으로 지배되는 것은 그에게 속한 돌봄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분노의 힘이 억제되고 있을 가장 유용한 훈계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을 싸움으로 무장시키고 심판자처럼 앉아서 우리들의 인내를 훈련시키신다는 것¹⁶⁸⁾이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비참들 중의 비참이요 섭리에 대한 인식 안에 최고의 행복(*summa beatitudo*)이 머물고 있다¹⁶⁹⁾고 결론하였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인간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되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정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만약 우리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어야 할 의무들을 미리 정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수단들과 종속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시는 것이므로, 그는 우리가 그의 능력의 기구들이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¹⁷⁰⁾고 하였다.

168) *Ibid.*, I, xvii, 8: "Sed haec ad sedandos omnes iracundiae impetus utilissima admonitio est, tam diabolum quam improbos omnes Deum amare ad conflictum, et sedere quasi agonothetam ut patientiam nostram exerceat."

169) *Ibid.*, I, xvii, 6~11.

17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54: "Ac memoria tenendum est, quod ante posui, ubi Deus per media et inferiores causas virtutem suam exserit, non esse ab illis separandam. Temulenta est ista cogitatio: decrevit Deus quid futurum sit, ergo curam ac studium nostrum interponere supervacuum est. Atqui, quum nobis quid agendum sit, praescribat, et virtutis suae organa nos esse velit: fas nobis esse ne putemus separare quae ille coniunxit."

동시에 칼빈은 기구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무생물들에 대하여 비록 본래 각각 자신의 특성들을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효력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기구들(instrumenta)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런 활동 혹은 저런 활동으로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신다¹⁷¹⁾고 표현하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기구 관념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바이올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기구관념의 대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태양은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기구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통해 아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¹⁷²⁾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전능과 자유, 그리고 주권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대지가 인간의 기술이나 경작이 없이 모든 종류의 야채와 과실을 산출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축복을 우리들의 손들의 노고에 약속하셨을 때,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신적 섭리의 기구(organum)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약속에 의해서 지탱되어 일을 민첩하게 해나가는데, 이는 그의 수고들이 공중으로 아무렇게나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기대고 있으면서 그의 비밀한 의논에 의해서 최상의 목적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있기 때문¹⁷³⁾이라고 말하였다.

171) Institutio 1559 I, xvi, 2: "Ac de rebus quidem inanimatis sic habendum est, quamvis naturaliter singulis indita sit sua propritias, vim tamen suam non exserere, nisi quatenus praesenti Dei manu diriguntur. Sunt igitur nihil aliud quam instrumenta quibus Deus assidue instillat quantum vult efficaciae, et pro suo arbitrio ad hanc vel illam actionem flectit ac convertit.

172) Institutio 1559 I, xvi, 2: "...sed instrumentum duntaxat quo utitur Deus, quia ita vult; quum possit, eo praeterito, per se ipsum nihilo difficilius agere."

173)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354~345: "Initio terram sine humana arte et cultura omne herbarum et frugum genus iussit producere, ...Et benedictionem suam Dominus manuum nostrarum labori promittit. Hac voce pius vir se divinae providentiae organum constitui agnosceret. Hac eadem promissione fretus, alacriter ad opus se accinget, quia persuasus erit, non fortuitam se operam in aere iacere: quae in Dei verbum recumbens, arcano eius consilio in optimum finem dirigetur."

게다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실로 자신의 모든 공훈의 언약들에서 자신의 종들로부터 보답으로 생활의 온전과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자신의 선하심이 조롱당하거나 선함 때문에 헛된 의기양양으로 부풀어올라서 자신의 마음의 왜곡 속에서 걷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않도록, 언약의 교통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을 이 방법으로 의무 안에 가두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체는 처음에 무상의 것으로 체결되고 영원히 그러한 것으로서 남아있다¹⁷⁴⁾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빌립보서 2장13절의 주석에서 의지의 선함들과 행위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양자 모두를 그의 무상의 공훈(*gratuitae misericordiae*)에 돌리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그는 성령이 친히 살아있는 기구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권고하면서, 그러나 즉시 두려움과 떨림을 추천하면서 자만을 진압한다고 하였다. 그는 바울이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심히 하고 겸손하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다는 것을 들을 때보다 우리를 겸손과 두려움으로 교육시킬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요 만약 그가 그렇게 가장 사소한 것에서조차 그의 손을 거두신다면 즉시 계속 넘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칼빈은 “우리의 자기확신은 부주의(*securitas*)와 자만(*ferocia*)을 낳는다. 이 두 가지 악의 치료는 우리들을 불신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이다(*Utriusque igitur mali remedium est si nobis diffisi, toti pendeamus ab uno Deo*). 그러므

174) Ibid., III, xvii, 5: “Siquidem ut in omnibus misericordiae suae pactis intergritatem ac sanctimoniam vitae vicissim a servis suis Deus stipulatur, ne ludibrio sit sua bonitas, neve quis inani ob eam exultatione turgidus, benedicat animae suae, ambulans interim in pravitate cordis sui: ita in foederis communionem admissos, vult hac via in officio continere. Nihilo tamen minus foedus ipsum et gratuitum initio feritur, et perpetuo tale manet.” 그리고 칼빈은 Ibid., III, xvi, 3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한가지 이 유만으로 참으로 충분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총들에 대한 기억이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자극하는데 가장 충족할 것이다(*Et sane haec nobis una causa satis esse debuerat, ut Deus in nobis glorificetur. Quod si qui Dei gloria non adeo vehementer afficiuntur, memoria tamen beneficiorum eius sufficientissima est, quae tales ad bene faciendum inctet.*)”라고 덧붙였다.

로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올려지고 있음으로써 그리고 자유의지가 축소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조심(sollicitudo)을 없앤다는 비방은 과렴치하다.¹⁷⁵⁾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겸손과 함께 조심함을 낳는다. 다른 하나는 의심을 낳는다. 전자는 자만만큼이나 육신적인 부주의와 나태함에 반대되고, 후자는 믿음의 확신에 반대된다. 게다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과 함께 안식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전혀 부주의하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들¹⁷⁶⁾에로 자극되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양심의 평온을 혼란케 하고 확신을 혼드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확신을 강화한다. 실로 우리들에 대한 불신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훈에 더욱 담대히 기대도록 만든다. 이것이 참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¹⁷⁷⁾라고 표현하였다.

175) S. Rutherford, *Influence of the Life of Grace*(London, 1658), 122: 사무엘 러더포드는 "1. God acts upon the creature first, and not the creature first upon God. 2. The Lord's dominion of influence on free will. 3. Nor are we to be idle and sleep, because the Lord is Master of his own influences. 4. The Lord commands not us to have, or want influences. 5. Influences are not our warrant to act, but the efficient cause thereof."는 논지의 글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은혜의 근거와 행동의 규범을 구별하고 있다.

176)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bid., I, xvii, 9: "Eadem cognitio temeritate et prava confidentia exutos ad continuam Dei invocationem nos impellet; tum etiam animos nostros bona spe fulciet, ut quae nos circumstant pericula, secure et fortiter despiciere non dubitemus."

177) J. Calvinus, Epst. Pauli ad Philippenses caput ii. 13: "Ergo non contentus tribuisse Deo et bonae voluntatis et operis effectum, utrumque gratuita eius misericordiae adscribit: Atqui spiritus sanctus admonet, se velle in vivis organis operari: sed mox arrogantiam retundit, timorem et tremorem commendans. A Deo, inquit, habetis omnia. Ergo solliciti et humiles estore. Nihil enim est quod magis ad modestiam et timorem erudire nos debeat, quam dum audimus nos sola Dei gratia stare: mox ruituros, si manum ille suam vel tantillum subtrahat. Fiducia nostri securitatem generat et ferociam. Utriusque igitur mali remedium est si nobis diffusi, toti pendeamus ab uno Deo. Quare impudens est calumnias qua nos gravant papistae, nempe quod extollendo Dei gratiam, et liberum arbitrium deprimendo, socordes reddamus homines, excutiamus timorem Dei, sollicitudinem tollamus. Deinde observandum est, sicuti in Dei gratia certo acquiescunt fideles, ita dum ad suam fragilitatem referunt oculos, minime securos dormire, sed periculorum timore excitari ad preces. Attamen tantum abest ut timor hic tranquillum conscientiae statum perturbet ac fiduciam concutiat, ut potius confirmet. Facit enim nostri diffidentia ut fortius

3. 하나님 안에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율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금지하신 것을 감춰진 의논에 의해서 작정하신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들이 있다는 반대에 대하여, 칼빈은 이러한 트집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라고 경고하므로, 하나님께서 만사의 원작자(*omnium autorem*)¹⁷⁸⁾이심을 성경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이 자신과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친히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의 의지가 하나고 단순(*una et simplex*)하지만,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의 연약함에 따라서는(*pro mentis nostrae imbecillitate*)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일을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quomodo idem diverso modo nolit fieri et velit, non capimus*)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소명을 감추어진 신비(*mysterium absconditum*)라고 말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내졌다고 후에 첨가한다. 우리의 지각의 우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multiplex apparet Dei sapientia*)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의논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가 우리에게 의해서 꿈꿔지고 있어야만 하겠는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을 이유 없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자. 왜냐하면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¹⁷⁹⁾

reclinemus in Dei misericordiam...quam ut se Deo cum vera sui abnegatione submittant.”

178)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Ibid.*, I, xvii, 8에서 “선하게 되어지는 일들과 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tam bona quam mala fieri putarent Deo non iubente*)”이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유대인들을 날카롭게 훈계하고 있다.

179) *Institutio* 1559 I, xviii, 3: “*Nam quod primo obiiciunt, si nihil eveniat nisi volente Deo, duas in eo contrarias esse voluntates, quia occulto consilio decernat quae lege sua palam vetuit, facile diluitur. Antequam tamen respondeam, monitos iterum volo lectores, cavillum hoc non in me sed in*

게다가 칼빈은 우리들의 정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높고 장엄한 욱기의 부분을 펼치고 있다. 즉, 우주의 구조가 위와 아래로 개관되어 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탄성을 발한 후에, 마침내 다음과 같이 끼워 넣고 있다고 하였다. “보라! 저런 것들은 그의 길들의 시작점일 뿐이요, 그 안에서 들려진 것도 얼마나 작은 소리인가?”(욥26:14)¹⁸⁰⁾

4.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의 계명들을 얼마나 엄격한 재가 하에 두고, 선지자들은 범법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위협했는지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마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음들을 할례하고, 돌 같은 마음들 대신에 살 같은 마음들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에 그의 율법을 새기고, 마침내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교훈이 유효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다”¹⁸¹⁾ 그렇다면 권고들은 무엇인가 라고

spiritum sanctum torqueri, ... Neque tamen ideo vel secum pugnat, vel mutatur Dei voluntas, vel quod vult se nolle simulat; sed quum una et simplex in ipso sit, nobis multiplex apparet: quia pro mentis nostrae imbecillitate, quomodo idem diverso modo nolit fieri et velit, non capimus. Paulus ubi gentium vocationem dixit mysterium esse absconditum (Eph. 3, 10), paulo post adiungit, in ea manifestatam fuisse polypoikilon sapientiam Dei. An quia propte hebetudinem sensus nostri multiplex apparet Dei sapientia (vel multiformis, ut reddidit vetus interpres) ideo somnianda nobis est in ipso Deo aliqua varietas, quasi vel consilium mutet, vel a se ipso dissideat? ... et simul reputemus, lucem quam inhabitat, non frustra vocari inaccessam, quia caligine obducta est.”

180) Ibid, I, xvii, 2: “Huius quoque altitudinis elogium ponitur in libro Iob, quod mentes nostras humiliet. Postquam enim orbis machinam sursum et deorsum lustrando magnifice disseruit autor de operibus Dei, subiicit tandem (Job. 26, 14): en istae sunt extremitates viarum eius, et quantum quod auditur in eo?”

181) Ibid., II, v, 4: “Sic Mosen severe videmus legis praecepta sancire, et prophetas acriter instare, et minari transgressoribus, quum tamen fateantur tunc sapere demum homines, ubi cor illis datur ad intelligendum; proprium Dei opus esse, corda circumcidere, et pro lapideis dare carnea; legem suam inscribere visceribus; denique animas innovando, facere ut efficax sit doctrina”

묻는 것에 대하여 칼빈은 예컨대,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만약 너희가 듣는다면’ 등의 호소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거나 듣고 있는 자유로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돌리시는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니라¹⁸²⁾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약 불경건한자들로부터 완고한 마음에 의해서 권고들이 무시된다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것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것들이 그들의 양심을 이미 지금도 두들기고 때린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가장 오만한 사람이 비웃을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비록 불경건한자들이 권고들을 기꺼이 피하려고 착수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신자들을 향하여는 “주께서 신자들 안에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있어서, 자신의 말씀의 기구(verbi sui instrumentum)를 경시하지 않고, 그가 그 자체를 효력 없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사의 직책을 경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 내적으로(intus)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이 필수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음성으로 부지런히 부르신다”¹⁸³⁾고 칼빈은 말한다.

한편 칼빈은 외적 소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가 부르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때문에 그가 속임수로 행한다고 말해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칼빈은 비록 외적인 음성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가 인간들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testimonium gratiae Dei)로 진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¹⁸⁴⁾라고 하였다. 따라

182) Ibid., II, v, 10: "En quomodo illis obtestationibus: si volueritis, si audieritis, neque volendi audiendive liberam facultatem nobis Dominus tribuat, neque tamen ob impotentiam nos ludibrio habeat." 물론 칼빈은 인간의지의 가능성이 있어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이 외부세계로부터 오는 정보와 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의 자유로운 지향적 공간에 대한 직관이 거기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2001년 2학기 안양신대원 Th.M. 강의안, p.14.)”고 하였다.

183) Ibid., II, v, 5.

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의 외적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은 그 인간을 그 만큼 크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에 하면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지각에 관한 한 다양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안에서 이것 저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신의 가지각색의 다양한 지혜에 따라서,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데(엡 3:10), 지금 그의 의지에 반대되게 보이는 것을 그가 어떻게 불가사의하게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아는 것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마비된 지각들을 주신다¹⁸⁵⁾고 하였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중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칼빈의 인식론에 따르면, 일어나는 일들의 질서니 원인이니 목적이니 필연성이니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칼빈의 경우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이며 주요한 원인이며, 그것에 의해서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들, 그리고 택자들과 유기자들도 창조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아야 할 죄의 원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악의(惡意)에 있다.

184) Ibid., III, xxiv, 15: "Experientia autem docet, ita velle resipiscere quos ad se invitat, ut non tangat omnium corda. Neque tamen ideo dicendum est fallaciter ipsum agere: quia etsi vox externa tantum inexcusabiles reddit qui eam audiunt, neque obsequuntur, vere tamen censetur testimonium gratiae Dei quo sibi reconciliat homines."

185) Ibid., III, xxiv, 17: "Quamvis multiplex sit Dei voluntas quoad sensum nostrum, non tamen eum hoc et illud in se velle, sed pro sapientia sua varie multiplici, ut eam Paulus vocat (Eph. 3, 10), attonitos reddere sensus nostros, donec cognoscere nobis dabitur mirabiliter eum velle quod nunc videtur esse voluntati eius adversum."

4. 칼빈은 악에 관한 같은 일에 대하여 차원적으로 다른 목적과 방식을 구별하여 전체 성경 안에 머물고 있다.
5.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서정과 선행들을 통하여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정하셨던 택자들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는 심판들을 통하여 유기자들에 대한 그의 의논을 실행하신다.
6. 선행들과 구원의 서정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종속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7.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지각에 관한 한 다양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요 단순하다.

칼빈이 비록 피기우스와의 논쟁의 맥락 속에서 아담 안에서 멸망한 무리들로부터 선택의 대상을 언급하였을지라도, 오히려 피기우스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과 그의 예정론의 전체 체계를 본다면, 그를 대표적인 타락전 선택설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AUS DEO!

색 인

1.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 나타난 causae propinquae et remotae

- 255~256 causas remotas et propinquas
- 296 causas propinquas et remotas / proxima causa
- 297 proximam causam / causa propinqua et remota
- 309 propinquae causae obiectu, remotam tollat
- 316 propinquam causam
- 342 procul remotas causas
- 363 propinqua remota causa
- cf. 310 conspicuas et quasi palpabiles causas
- 314 occasiones procul remotas

2.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서 De providentia에 나타난 inferior causa

- 352 inferiores causae
- 353 inferioribus causis
- 354 per media et inferiores causas
- 360 causas inferiores
- cf. 352 inferioribus mediis

3. J. Calvinus, Institutio 1559에 나타난 inferior causa

- I, xvii, 6 causas inferiores
- I, xvii, 9 causas inferiores / inferiorum huiusmodi causarum
- III, xiv, 21에서 causas inferiores

참 고 문 헌

- Augustin. *On the Trinity*. Vol. III of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Arthur West Haddan. Michigan: Wm. B. Eerdmans, 1980.
- Augustin. *City of God*. Vol. II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Marcus Dods [CD-ROM], AGES Digital Library Collections, 1997.
- Bavinck, Herman. *The Doctrine of God*. Translated by William Hendriksen. The Bath Press, 1977.
- Bayne, Paul. *AN ENTIRE COMMENTARY UPON THE WHOLE EPISTLE OF THE APOSTLE PAUL TO THE EPHESIANS*. London, 1643.
- Beza, Theodore. *A briefe declaration of the chiefe poyntes of christian religion*. n.p., n.d..
- Beza, Theodore. *Treasure of Truth*. London, 1581.
- Calvinus, Joha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Baun, E.Cunitz, E.Reuss. Vol. VIII. Brunsvigae, 1864.
- Calvinus, Joha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Baun, E.Cunitz, E.Reuss. Vol. XLIX. Brunsvigae, 1892.
- Calvinus, Joha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Baun, E.Cunitz, E.Reuss. Vol. LII. Brunsvigae, 1895.
- Heppe, Heinlich. *Reformed Dogmatics*. Translated by G. T. Thoms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 Rutherford, Samuel. *Influence of the Life of Grace*. London, 1658.
- Rutherford, Samuel.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Edinburgh, 1655.
- THE CONFESSION OF FAITH*. John Walter Ross: Convener. Publications Committee. Scotland, 1983.
- Twiss, William. *A Treatise of Mr. Cottons, Clearing certaine doubts concerning predestination*. London, 1646.
- Twiss, William. *A Discovery of D. Jacksons vanitie*. Imprinted ANNO M. DC. XXXI, 1631.

Zanchius, Jerom. "The Predestination of the Mahometans." *The Doctrine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lated by Augustus M. Toplady [CD-ROM] Edmonton: Still Waters Revival Books, n.d.

Hume, David. *An Enquiry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이정숙 역, 『인간 오성의 탐구』 고려원, 1996.

Kant, Immanuel.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2001.

Schroeder, Gerald. *The Science of God.*, 이정배 역, 『신의 과학』 범양사 출판부, 2000.

강건일. 『신과학은 없다(상)』 지성사, 1998.

김영규. 『칼빈의 성화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김영사, 1999.

이인식 외 17인. 『현대과학의 쟁점』 김영사, 2001.